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조건부가치측정법 (CVM)을 이용한
지역문화예술축제 입장료
경제적 가치평가

: 제주국제관악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양 성 진

2023년 8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지역문화예술축제 입장료
경제적 가치평가

: 제주국제관악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설 우

양 성 진

이 논문을 경영학(문화예술경영)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양성진의 경영학(문화예술경영)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 부 연

위 원

방 호 진

위 원

박 설 우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23년 6월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Admission
Fees to a Local Culture and Arts Festival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Focusing on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Sungjin Yang
(Supervised by professor Seolwoo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in Business Administration

June, 2023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Boo Yun Cho, Prof.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jin Bang



Seolwoo Park



June, 2023

Department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한 지역문화예술축제 입장료 경제적 가치평가 : 제주국제관악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양 성 진

문화예술축제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향유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활동이다. 문화예술축제는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화예술축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축제로서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지불의사금액(WTP)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추정법(DB-DC CVM)을 이용하여 제주국제관악제를 경험한 관람자를 대상으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2023년 3월 18일부터 4월 14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을 통해 유효한 263부의 응답자 지불의사와 가치 정도를 조사한 후에 SPSS 24와 STATA 1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국제관악제의 입장료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 평균값은 23,688.1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설명변수인 추천의도와 교육목적은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음악장르 문화예술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여 추

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을 알아내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경제적 가치평가는 최초로 시도되고 연구되었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축제 입장료를 도입한 사례에서 입장료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 경제적 가치평가가 입장료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추천의도가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볼 때, 축제 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위해 구전(word of mouth)에 의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교육목적이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축제 기간에 교육목적의 음악학교를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미국 콜로라도에서 9주간 열리는 아스펜음악축제(Aspen Music Festival)에서 음악학교(Aspen Music School)도 함께 운영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문화예술축제, 제주국제관악제, 경제적 가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지불의사금액(WTP)

목 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과정	3
II. 이론적 배경	5
1.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선행연구	5
1) 문화예술축제의 개념	5
2) 문화예술축제 관련 사례	8
3) 선행연구를 통한 함의	21
2. 제주국제관악제 현황 및 관련 연구	23
1) 개요	23
2) 관련 선행연구	33
3) 효과 및 한계	35
3. 문화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평가	37
1) 문화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	37
2) 조건부가치측정법(CVM)	44
3) 문화예술축제와 조건부가치측정법(CVM)	55
III. 연구 방법	59
1. 연구 대상 및 표본 선정	59
1) 연구 대상 및 표본 선정	59
2) 변수 선정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59
2. 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에 의한 설계	62
1) 설문지 설계	62
2)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모형	67

IV. 분석 결과	7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기초통계분석	7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1
2) 기초통계분석	74
2.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 경제적 가치추정	79
1) 지불의사금액 추정	79
2) 경제적 가치추정	87
V. 결론	89
1. 요약 및 결론	8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91
참고문헌	93
Abstract	102
[부록] 설문지	104

표 목 차

<표 II-1>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축제 유형	6
<표 II-2> 거창국제연극제의 발전 단계	9
<표 II-3>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구분	11
<표 II-4> 전주국제영화제의 단계별 분류	13
<표 II-5> 베니스 비엔날레의 시기별 분류	20
<표 II-6> 제주 관악 역사의 시대별 정리	25
<표 II-7> 제주국제관악제 연도별 정리	29
<표 II-8> 제주국제관악제 선행연구 정리	34
<표 II-9> 문화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 종류	38
<표 II-10> 현시선호접근법 및 진술선호접근법 비교	39
<표 II-11> 공공사업에서 편익측정 개념의 구분	42
<표 II-12> CVM의 편의	47
<표 II-13> CVM의 지불의사 유도방법	48
<표 II-14> NOAA 패널의 지침	51
<표 II-15> CVM의 축제 선행연구 정리	58
<표 III-1> 설명변수의 선행연구 정리	61
<표 III-2> 양분선택형 질문법의 추정모형 비교	64
<표 III-3> 제시금액 설계	66
<표 III-4> 편의의 해결방안	67
<표 III-5> 설명변수의 정의	68
<표 IV-1> 설문조사방법 및 내용	70
<표 IV-2> 성별	71
<표 IV-3> 연령	71
<표 IV-4> 학력	72
<표 IV-5> 거주지역	72
<표 IV-6> 직업	73

<표 IV-7> 월 평균소득	73
<표 IV-8> 관람 횟수	74
<표 IV-9> 정보 경로	75
<표 IV-10> 관람 동행자	75
<표 IV-11> 평균 관람시간	76
<표 IV-12> 관람 목적	77
<표 IV-13> 만족도, 즐거움, 재관람의도, 추천의도	78
<표 IV-14> 제시금액별 지불의사 응답률	80
<표 IV-15> 제시금액에 따른 지불의사	81
<표 IV-16> 지불의사금액 분포와 지불의사 응답률	82
<표 IV-17> ‘지불의사가 있다’ 라고 응답한 이유	83
<표 IV-18> ‘지불의사가 없다’ 라고 응답한 이유	84
<표 IV-19>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추정 결과	85
<표 IV-20>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추정 결과	86
<표 IV-21>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의 중앙값과 평균값	87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 진행과정	4
[그림 II-1] 거창국제연극제	8
[그림 II-2]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10
[그림 II-3] 전주국제영화제	12
[그림 II-4]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	15
[그림 II-5]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17
[그림 II-6]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결산 내역(2019)	18
[그림 II-7] 베니스 비엔날레	19
[그림 II-8]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일반적인 적용 절차	45
[그림 III-1] 설문지 작성 절차	62
[그림 IV-1] 제주국제관악제의 지불의사금액 연구모형	79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역마다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축제가 자주 거론된다. 제주지역 역시 많은 축제들이 운영되고 있고, 올해도 제주지역에 40개가 넘는 다양한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제주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수많은 축제가 연중 운영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문화예술축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국제관악제는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로서 제주에서는 몇 안되는 국제적인 축제이기도 하다. 2022년에는 22개국, 64개팀, 2,873명의 연주자가 참가하여 제주 전역에서 수준 높은 관악 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와같이 제주국제관악제는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제주라는 작은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나 국제적인 축제로서, 관악축제로서 관악계의 최정상 연주자들이 참여할 만큼의 수준높은 축제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제주국제관악제나 문화예술축제와 관련한 연구 및 논의는 주로 축제의 성과나 활성화방안에 초점을 두거나 관련한 연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예, 김광훈, 2021; 김태관, 2011; 서연호, 2001; 운동진, 김정희, 2016; 이강봉, 2012), 문화예술축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특히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지역과 같은 관광지의 경우, 제주국제관악제로 인해 도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까지 관람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경제적 가치를 비롯하여 제주의 경제적인 측면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제주국제관악제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운영 전반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세계적인 축제로의 운영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주국제관악제와 같은 축제는 공공재 및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장료가 없거나 매우 낮은 비용을 지불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장기구를 통해서 그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는 축제가 비시장재화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문화예술축제는 시장가치와 함께 보다 큰 비시장가치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축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가치는 시장가치보다 크며, 비사용가치(예, 축제의 유지, 보존, 발전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같이 시장가치보다 큰 사용가치와 일반 재화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비사용가치를 포함하는 문화예술축제의 총 가치(total value)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이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쓰인다.

본 연구에서도 CVM을 통해 문화예술축제 입장료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며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국제관악제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설문지 설계 단계에서 가상상황을 설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사를 바탕으로 1인당 지불의사금액(Willing to Pay; WTP)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국제관악제의 입장료에 대한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고, 다른 축제의 입장료 추정 결과와 비교·분석을 통해 다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입장료에 대한 1인당 WTP에 평균 관람객 수를 곱하여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비록 지불의사금액(WTP)이 추정값에 불과하지만, CVM을 이용하여 비시장재인 문화예술축제 입장료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평가하여 제주국제관악제를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투자 등의 타당성 확보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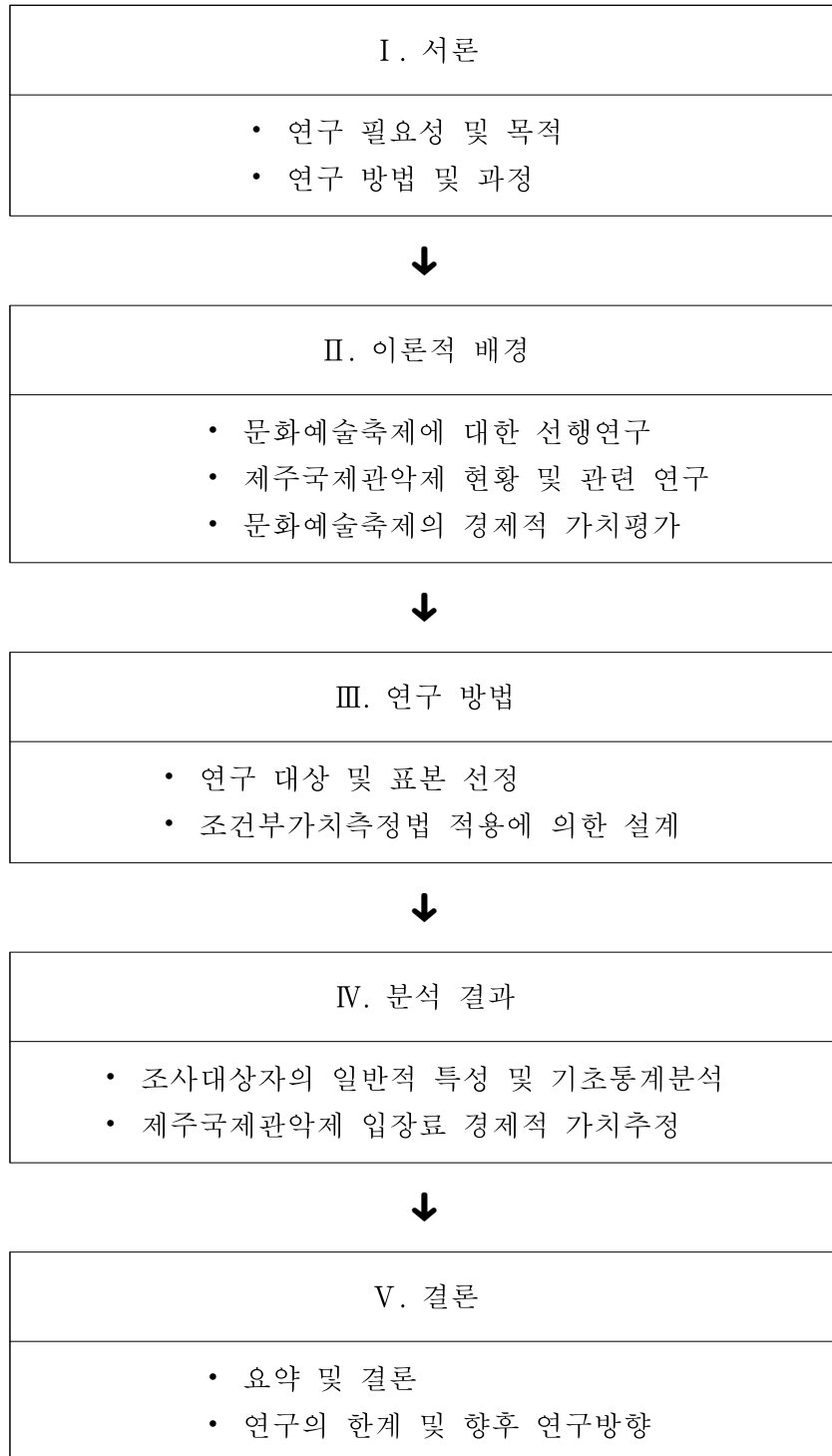
2. 연구 방법 및 과정

본 연구는 2장 이론적 배경에서 문화예술축제의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함의를 도출하였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주국제관악제의 효과 및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문화예술축제 입장료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으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채택하고 이론 및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3장 연구 방법에서 제주국제관악제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고, 표본으로 사전 조사는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한 제주도민, 본 조사는 제주국제관악제 관람객 및 관람 경험자로 선정하였다. 조건부가치추정법은 설문지 설계에 따라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패널의 지침에 따라 설문지를 설계하고, 조건부가치추정법에서 주로 쓰는 로짓모형을 추정모형으로 정하였다.

4장 분석 결과에서는 SPSS 24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기초통계를 분석하였고, STATA 14를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WTP)을 분석하고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5장 결론에서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분석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면서 정리한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 계획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I -1] 연구 진행과정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선행연구

1) 문화예술축제의 개념

문화예술축제에서의 축제(祝祭)란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또는 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뜻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23). 축제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에 행하는 의식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에는 축제가 존재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축제를 즐기고 경험한다. 축(祝)과 제(祭)의 두 한자의 결합인 ‘축제’는 조선시대 말엽인 1900년대에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신조어이며 우리나라의 세시풍속 중 설날과 같은 큰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상현, 2021). 축제라는 단어에서 빌 축(祝), 제사 제(祭)를 풀이하면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소원을 빌었다는 의미이다. 축제의 어원(語源)을 살펴보면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축제를 종교적 기원으로 바라보면 강력한 사회통합력을 갖고 성스러운 존재와 교감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이원미, 2019). 서양에서 축제를 의미하는 ‘페스티벌(Festival)’은 ‘경축하는 날(Dies Festus)’에서 유래한다. 라틴어인 ‘Festus(경축하는)’와 ‘Dies(날)’가 결합된 단어이며 종교적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적 축제는 전통적 축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질 수는 없다. 우리에게 축제는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기 위한 것으로 전통적 축제와 현대적 축제는 구분되고 있다. 제례적 행사인 전통적 축제에서 핵심이었던 문학, 음악, 무용은 현대적 축제에서 오락과 소비를 위한 미적 상품으로서 중요성과 가치가 변화하게 되었다. 고전적 의미의 축제는 더 이상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적 의미의 축제는 대중성, 오락성, 상업성 같은 집단적인 유희의 의미와 경제적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영순, 최민성, 2006). 현대적 축제는 상업화되고 문화산업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축제에서도 다양한 융복합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주로 실외에서 드론, 홀로그램,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 등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축제는 해당 축제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축제에 참여한 방문객들의 동기에 따라 구분되거나(Crompton & McKay, 1997), 실태조사를 통해 축제 유형을 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성화 축제로 분류되기도 한다(문화연대, 2001). 축제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생태자연 축제, 문화예술축제, 전통역사민속축제, 지역특산물축제, 경연·산업축제 등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는 실질적인 구분 체계로서 효율적으로 실행 및 평가 과정에서 쓰인다(류정아, 2007).

<표 II-1>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축제 유형

축제 유형	축제 사례
생태자연축제	양평산수유마을축제, 서운암들꽃축제, 소백산철쭉제, 함평나비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진도영등제, 한라산눈꽃축제, 보령머드축제
문화예술축제	광주비엔날레, 과천마당극제, 춘천마임축제, 안동탈춤페스티벌, 영동난계국악축제, 부천복사골예술제
전통역사민속축제	정선아리랑제, 제주들불축제, 영양왕인문화제, 진도영등축제, 강진청자문화제, 남원춘향제, 강릉단오제, 정조효행문화제, 당항포대첩축제, 대구아리랑제, 영덕목은문화제, 행주대첩제, 백제문화제
지역특산물축제	무안연곡축제, 화성포구축제, 보물섬마늘축제, 하동전어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가평군포도축제, 세계도자기비엔날레, 단월고로쇠축제, 경주버섯축제, 금산인삼축제, 남도음식축제, 어상천수박축제, 여주진상명품전, 송지호제첩잡이체험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서천한산모시축제, 한지문화제, 통영나전칠기축제, 대구약령시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경연·산업축제	황강레포츠축제, 제주마라톤축제, 컴퓨터게임엑스포, 충주세계무술축제

축제는 본질적으로 문화적이며, 대중문화의 산물인 문화콘텐츠의 전형 중 하나이다. 그런데도 ‘문화’라는 말로 한정해서 문화예술축제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문화의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문화(文化)란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을 뜻한다. 문화라는 용어를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화는 그것이 포함된 담론의 맥락에 따라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갖는 다담론적 개념이다. 서양에서 문화(culture)라는 말은 경작 또는 재배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cultus)에서 유래했다. 즉, 문화는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를 해낸 것을 뜻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3). 따라서 문화축제는 지역, 전통, 창조, 인적 인프라를 핵심 구성요소로 갖는 문화콘텐츠로 그 미학적 관점은 ‘지역적 전통성’과 ‘인적 창조성’으로 회귀하게 된다. 지역적 전통성은 전통문화축제, 인적창조성은 문화예술축제의 주된 기반이 되며 문화축제를 나누는 특성이 된다(류은영, 2012). 일반적으로 축제는 문화예술적 성격을 갖지만, ‘문화예술’이 축제에서 중심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문화예술축제로 분류할 수 있다. 문화예술축제는 축제의 기본적인 특성을 지니고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김홍업, 2011).

문화예술축제는 개최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활성화시키려는 지역축제보다 공연 및 예술의 본질적인 특성과 작품성, 창의성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축제와 비교해보면, 문화예술축제는 부대행사나 이벤트를 활용해 축제의 다양성과 차별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보다는 공연 프로그램의 충실함과 질적인 수준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문화예술축제의 장르를 영화제, 연극제, 음악제, 기타 문화예술축제(미술제, 비엔날레, 무용제, 뮤지컬, 마당극)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희진, 안태기, 2010).

축제에서 문화축제 그리고 문화예술축제까지 세분화시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축제를 폭넓게 이해하고자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문화예술축제 관련 사례

(1) 국내 사례

① 거창국제연극제

연극제는 세계 곳곳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공연예술행사로써 연극공연대회를 말한다. 근대 이후에는 주로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을 개발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연형식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극제는 참여 관객이 전문적이어서 대중성이 부족하고, 상업성과 오락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창작성과 작품성을 표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부족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대규모 행사로 개최되기 힘들다. 주로 작은 도시나 마을에서 소규모 행사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김희진, 안태기, 2010).

거창국제연극제는 30년간 국내외 700여 개의 극단에서 2만여 명의 연극인과 200만 명의 관객이 다녀간 야외연극축제이다(거창국제연극제 홈페이지, 2023).



[그림 II-1] 거창국제연극제

※ 출처: 거창국제연극제 홈페이지(2023).

거창국제연극제는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1989년 시월연극제로 시작하였다. 제1회부터 제9회까지 연극의 불모지 거창에서 외부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주도의 연

극제가 시작되었다. 1998년 제10회 때부터 수송대 계곡 일원에서 야외무대를 마련하고 처음으로 야외연극제를 개최하였다. 가을, 겨울에 개최했던 연극제가 이때부터 여름으로 개최시기가 고정되면서 야외연극축제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1999년 제11회부터 참가단체 및 관람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고, 이는 연극축제의 세계화, 문화산업화, 관광자원화가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전문 연극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생적인 연극축제이며 그 발전과정은 발아기(1989~1998), 성장기(1999~2008), 전성기(2009~)로 구분하기도 한다(하동훈, 2022).

<표 II-2> 거창국제연극제의 발전 단계

구분	발아기 (1989년~1998년)	성장기 (1999년~2008년)	전성기 (2009년~)
국내/해외 참가단체 수	10개/4개	31개/6개	55개/12개
개최시기/기간	가을, 겨울/7일간	여름/14일간	여름/17일간
장소	읍, 입체예술극장	수송대/5개 공연장	수송대/7개 공연장 읍내/4개
누적관람객	47,204명	964,675명	988,053명
평균예산/출처	1억원/자비	5억원 /국,도,군비,자비	11억원 /국,도,군비,자비 * '16~18년 지원 無

※ 출처: 하동훈(2022)의 문헌을 재구성함.

거창국제연극제는 문화예술적인 파급력을 가졌으며 동시에 경제적 파급력도 증대되었다. 지역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6년 경남발전연구원의 “거창국제연극제 개최결과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133억 원으로 분석되었다(김한도, 2006). 거창국제연극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파급효과와 소득파급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수입파급효과, 조세파급효과 등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하기도 한다(이종원, 박정배, 2014). 또한 거창국제연극제가 지역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다른 축제와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축제 콘텐츠

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콘텐츠 활성화 방안으로 문화예술도시 전략적 브랜드화, 문화예술축제 콘텐츠의 개발, 마케팅전략 수립으로 관객 유치, 소통시스템 구축, 도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상설 공연장 및 전시관 확보 등이 요구된다(송은아, 임준묵, 2018).

②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비엔날레(Biennale)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미술전이다. 미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교류가 확대되고 활발해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전시회나 국제미술축제가 기획, 개최되기 시작했다. 행사 준비에 걸리는 기간이나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에 맞춰서 2년마다 개최되는 비엔날레, 3년마다 개최되는 트리엔날레를 채택하기도 한다(김희진, 안태기, 2010).

1996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도시와 영상-Seoul in Media》 전을 총 3회에 걸쳐 개최했다. 전시에서 도시 서울과, 미디어와 관련한 사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2000년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비엔날레를 출범시켰다.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로 시작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지난 25년 동안 도시 서울과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홈페이지, 2023).



[그림 II-2]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출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홈페이지(2023).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행사명은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 2002년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2010년 《미디어시티 서울》, 2014년 《SeMA 비엔날레》, 2018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순으로 변경되었다. 행사명의 잦은 변경은 미디어아트의 담론 부족, 정책변화에 따른 예산 부족, 행사 주체와 전시의 정체성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된다(배수희, 2022). 특히 《미디어_시티 서울》이라는 명칭은 미디어아트, 국제, 비엔날레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는 미디어가 생활 전반에 일상화, 보편화되어 도시 서울에 정착하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타 지역 비엔날레와는 차별성을 만들었다(김보윤, 2018).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변화를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와 미술의 제작, 향유 형태, 관심사, 참여 방식에 근거한 구분이다(권진, 2022).

<표 II-3>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구분

구분	주요내용
정체성 형성기 1996~1999	- 《도시와 영상》 전시가 세 번 개최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정체성의 원형 제시
형식의 구축 2000~2006	- 1회부터 3회까지 《미디어_시티 서울》 개최 - 비엔날레 형식과 서울의 미래 브랜딩에 충실
과도기 2007~2012	- 미디어에 관한 확장된 해석의 필요성 자각, 변화 시도 - 4회부터 6회까지 미디어아트에 대한 접근, 기술과의 관계성을 각각 다르게 설정
미술관과 비엔날레 2013~2018	- 미술관과 전략적인 관계, 구조적인 성장 - 성패를 가늠하는 복합적인 조건에 관한 질문과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
미디어아트 2019~2022	-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두된 일상 미디어의 영향, 문화적 현상, 변화하는 미술 제도의 패러다임 인지 - 기술과 예술간의 대칭적 구도를 벗어나 동시대 미디어 아트를 어떻게 인지할지 질문을 던짐

※ 출처: 권진(2022)의 문헌을 재구성함.

③ 전주국제영화제

영화제(映畵祭, film festival)는 최근에 나온 영화, 화제작, 특별한 장르의 영화들을 대상으로 평가하거나 전시하는 문화행사를 뜻한다. 영화제는 문화예술축제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다. 영화제는 지역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 등 대내외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리고 영화인의 친선과 교류의 만남의 장이면서 동시에 관객들에게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되는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희진, 안태기, 2010).

전주국제영화제(JIFF)는 ‘대안, 독립, 디지털’을 슬로건으로 2000년에 출범하여 부분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국제영화제이다. 개최 초기에 주류영화와 다른 대안영화, 디지털영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영화들을 상영했으며 ‘자유, 독립, 소통’을 개최목적으로 하였다(김지후, 2019). 부산국제영화제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개최를 했기 때문에 경쟁력과 차별성을 고려해 디지털이라는 매체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류영화에서는 소재로 삼기 힘든 소외된 사람, 사물, 가치 등을 중심으로 다룬 영화들을 소개했다. 노인, 여성, 청소년, 소수민족, 제3세계, 동성애, 국가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억압과 고통을 받는 일반시민 등 소외된 대상을 대안영화나 독립영화에서 다루면서 전주국제영화제의 중심으로 이끌어냈다(유창석, 원도연, 2016).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아버지의 길] 골목상영

[그림 II-3] 전주국제영화제

※ 출처: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2023).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2000년 전주국제영화제 출범과 함께 시작된 ‘디지털 삼인삼색’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영화인들이 주목했지만, ‘디지털’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퇴색하자 2014년 ‘전주시네마프로젝트’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단편에만 한정되었던 제작방식을 장편으로 전환하고, 저예산 장편영화의 제작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올해 개최되는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우리는 늘 선을 넘지(Beyond the Frame)’를 슬로건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42개국 247편의 작품이 상영되었다(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2023).

2000년에 시작된 전주국제영화제를 슬로건, 디지털 기술의 수용성을 반영한 프로젝트의 변화에 근거하여 크게 3단계의 발전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 II-4>와 같다.

<표 II-4> 전주국제영화제의 단계별 분류

구분	전주국제영화제		
시기	도입기 (2000~2002)	성장기 (2003~2013)	변화기 (2014~)
주제의식	대안, 독립, 디지털	자유, 독립, 소통	대안, 독립
JIFF 프로젝트	- 디지털삼인삼색 시작	- 디지털삼인삼색 지속 - 숲!숲!숲! 시작(07)	- 디지털삼인삼색과 숲!숲!숲! 통합 (14) - 디지털삼인삼색에서 전주프로젝트: 삼인삼색으로 개칭 (15)

※ 출처: 유창석, 원도연(2016)의 문헌을 재구성함.

(2) 국외 사례

①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

음악 축제(music festival)는 음악을 주제로 개최하는 문화예술축제이다. 훌륭한 음악가를 기리기 위한 것, 특별한 목적으로 음악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 음악과 관련된 지역문화행사로써 개최되는 것 등 다양한 축제가 존재한다. 음악 축제는 다른 문화예술축제와 비교하면 다양한 종류가 있다. 서양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 축제부터 국악을 주제로 하는 소리축제, 퓨전음악 축제, 악기 중심의 페스티벌 등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음악 축제는 특정지역에서 민족음악이나 현대음악 등 특정한 양식의 곡을 연주하거나 유명한 작곡가를 기리며 작품을 연주하고 표현하는 축제행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김희진, 안태기, 2010).

잘츠부르크는 ‘소금의 성(城)’이란 뜻이며 과거에는 소금 산지로 유명했지만 현재는 알프스의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하고 화려한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이다. 수세기 동안 음악의 중심지였던 잘츠부르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유명하고 모차르트와 관련된 콘텐츠가 많은 장소이다(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4).

1920년 8월 22일 잘츠부르크 대성당 광장에서 휴고 폰 호프만스탈(Hugo von Hofmannsthal)의 연극 ‘예더만(Jedermann)’을 막스 라인하르트(Max Reinhardt)의 연출로 상연한 것이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Salzburg Festival)의 시작이다. 연극 외에 1921년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공연, 1922년 오페라가 추가되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오페라, 콘서트, 연극은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홈페이지, 2023).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가 개막되면 모든 공연장에서 대대적인 행사가 펼쳐지고 도시 전체가 음악회장으로 바뀐다. 1925년 궁정 마구간을 개축하여 공연장으로 만든 구축제 극장, 1960년 뮌히스베르크 언덕 아래에 만든 신축제 극장 등이 중심이 되어 축제가 열리며, 거리의 악사들이 모차르트 생가와 동상 주변에서 그를 기리며 그의 음악을 연주한다. 축제 초기에는 모차르트 음악만을 연주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음악으로 공연하고 있다(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4). 축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 유명한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축제 장소 주변인 고성 호엔 베르펜과 초

원, 미라벨 정원 등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촬영지로 영화의 배경이 되었다.



[그림 II-4]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

※ 출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홈페이지(2023).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는 100여 년 전에 휴고 폰 호프만스탈(Hugo von Hofmannsthal), 막스 라인하르트(Max Reinhardt),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에 의해 설립되어 오늘날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성공으로 이끈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 첫째,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는 다른 어떤 축제보다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작품 선정과 해석에 있어서도 모차르트부터 현대 작곡가까지, 고전적 해석부터 전위적 실험까지, 호프만스탈의 ‘예더만’부터 차이코프스키(Tchaikovsky)의 ‘유진 오네긴(Eugene Onegin)’까지 가장 넓은 범위를 제공한다. 둘째, 축제를 방문하면 예술과 휴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셋째, 축제는 매우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잘츠부르크의 호프슈탈 골목(Hofstallgasse)과 바로크 양식의 구시가지 전체가 축제의 배경을 이룬다(잘츠부르크페스티벌 홈페이지, 2023). 매년 7월 말부터 약 40일간 진행되는 축제 기간에는 거주인구 153,000명의 두 배 가까운 인원이 축제에 참석한다고 한다.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 참가자들은 하루 평균 319유로를 소비하고, 매년 방문객 5명 중 4명이 재방문하고 있으며 평균 체류 기간도 6일로 장기 체류를 한다.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의 인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축제 자체에서는 약 3,000만 유로

의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축제를 통해서 매년 1억 8,300만 유로의 현금 수입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잘츠부르크 1인당 GDP가 46,100유로로 오스트리아 평균보다 높고,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를 제외한 어떤 유럽 국가들보다 높다. 잘츠부르크 경제회의소(Salzburg Economic Chamber)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음악 축제는 도시에서 2,8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6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로 인해 7,700만 유로의 세수가 발생한다(Tomer, 2017).

②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에딘버러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은 매년 8월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되는 문화예술축제를 총칭해서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에딘버러 국제영화제, 로열 에딘버러 밀리터리 타투, 에딘버러 재즈 앤 블루스 페스티벌 등 많은 축제가 있으나(에딘버러 페스티벌 홈페이지, 2023), 본 연구에서는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Edinburgh Festival Fringe)는 매년 8월 에딘버러에서 3주간 열리는 문화예술축제이다(에딘버러페스티벌프린지 홈페이지, 2023).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에서 벗어나 예술과 문화를 통한 ‘유럽의 평화와 통합’을 목적으로 1947년 8월 24일 제1회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이 개최되었고, 초청받지 못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8개 극단이 에딘버러에 나타나 변두리 작은 극장에서 자발적으로 공연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1948년 스코틀랜드 언론인이자 극작가인 로버트 캠프(Robert Kemp)가 ‘페스티벌의 변두리에서(Round the fringe of the official festival)’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고 이를 계기로 ‘페스티벌 프린지’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되었다(왕치현, 이문기, 2006).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는 시작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세 가지 원칙을 지켜오고 있는데, 이는 실험성이 강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공연양식을 새롭게 추구하는 프린지 정신에서 기인한다.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의 원칙은 첫째, 축제위원회는 누구에게나 참여의 기회를 주려고 공연자를 초청하지 않는다. 즉, 개방성

을 축제의 운영원리로 삼는다. 둘째, 가건물과 같이 전통적이지 않은 공연공간을 사용하며 하루에 3~4팀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재정적인 위험부담은 스스로 감수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예술가들이 축제 참여를 망설이지 않도록 참가비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책정한다. 셋째, 공연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객의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 공연작품은 살아남거나 퇴출하게 된다(김춘식, 남치호,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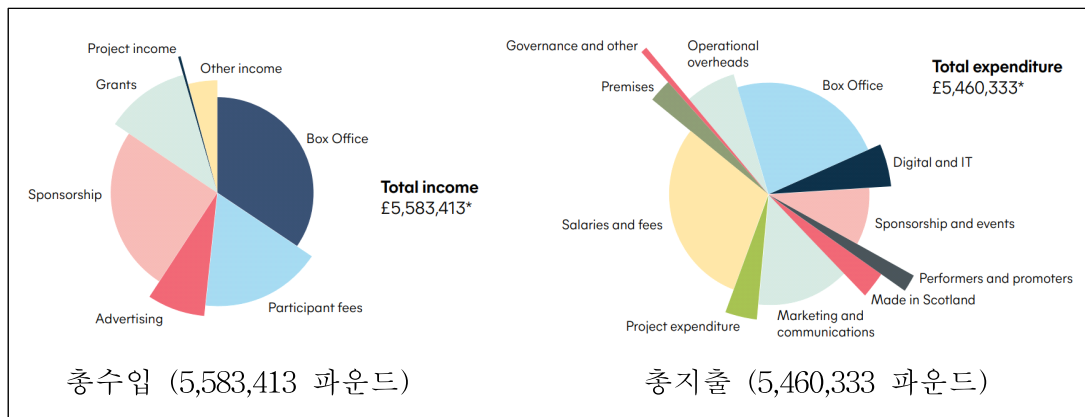
[그림 II-5]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 출처: 에딘버러 페스티벌 홈페이지(2023).

2023년에 76주년을 맞게 되는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에서 현대 문화예술축제의 방향성과 아이디어를 얻은 문화예술축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프린지’라는 이름으로 그 취지와 방식을 인용하면서,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처럼 열린 프로그램 구성 방식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관을 가지면서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서울 프린지’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박서재, 2022).

2019년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의 결산내역을 나타낸 [그림 II-6]을 보면, 총수입 5,583,413 파운드, 총지출 5,460,333 파운드로 123,080 파운드 재정흑자임을 알 수 있다. 축제 수입의 대부분은 티켓 판매비, 출판물과 웹사이트와 관련된 광고, 참가단체 등록비, 후원금, 프린지 프렌즈제도에서 발생한다. 기타수입에는

기부금, 임대수입, Gift Aid, 거래 자회사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총수입 내역에서 참가단체 등록비 수입이 국고보조금 수입보다 높다는 점과 티켓 판매 수입과 후원금이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지출의 대부분은 티켓 판매 서비스, 진행인력 인건비이며, 이외에 예술가 지원, 프로모션, 출판물 및 웹사이트 제작 등 홍보 항목으로 지출된다(김현정, 2022).



[그림 II-6]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결산 내역(2019)

※ 출처: Edinburgh Festival Fringe Society(2019).

실제로 에딘버러는 각종 페스티벌을 개최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매년 70개국에서 예술가 25,000명 이상, 관련 미디어 2,000~3,000팀 이상이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BOP 컨설팅이 조사한 에딘버러 페스티벌의 2015년 경제적 효과는 279,650,000파운드이고 축제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는 5,660개의 정규직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광희, 변재진, 2020).

③ 베니스 비엔날레

La Biennale di Venezia는 12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문화기관 중 하나이다. 1895년 국제미술전, 1930년 국제현대음악축제, 1932년 국제영화제, 1934년 국제연극축제, 1980년 국제건축전, 1999년 국제현대무용축제가 개최되었다. 1895년 베니스 비엔날레(국제미술전)는 세계 최초의 비엔날레, 1932년 베니스 영화제는 역사상 최초의 영화제였다(베니스 비엔날레 홈페이지, 2023).

1895년 개최된 베니스 비엔날레(Biennale di Venezia)는 세계 최초의 비엔날레로서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전이다. 19세기 말 이탈리아 통일로 베니스는 도시의 자치권을 잃었는데 상실된 도시의 긍지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이광희, 변재진, 2020).



[그림 II-7] 베니스 비엔날레

※ 출처: 베니스 비엔날레 홈페이지(2023).

베니스 비엔날레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가국들이 미술을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힘을 겨루는 경쟁터이자 무대이다. 제국주의가 확장할 때 시작된 비엔날레의 초기에는 한 국가의 정치력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는 파시스트 개인의 이념이, 전후에는 한 국가의 경제력과 정치력이 문화적인 힘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베니스 비엔날레는 미술가의 국적을 강조하며, 국가관 전시제도는 다른 비엔날레와 구별시키는 특성을 만들어냈다(김정희, 2005).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를 ‘미술계의 올림픽’이라고 일컫는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다른 비엔날레와 다르게 100년 넘게 국가관을 운영하면서 21세기 미술에 글로벌(global) 개념도 각인시킨다. 글로벌 사회와 글로벌 경제라는 이름으로 베니스 비엔날레가 현재는 참가국 간의 경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정치의 미학화 및 사회, 정치, 경제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김승호, 2018).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시작된 비엔날레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비엔날레는 단발성의 행사가 아니라 미술 문화 제도로 존재함으로써 제도적 힘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미술계의 핵심이 된 비엔날레의 모순과 역기능을 비판하기보다 잘 작동하여 예술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고 미학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서희주, 2022).

가장 최근에 개최된 베니스 비엔날레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2년 4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렸던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는 80개국, 본전시 초청작가 213명(첫 참가작가 180명)이 참가하고, 작품 1500여 점을 출품하였다. 하루 평균 관람객 수는 4,062명이고 800,000장 이상의 티켓이 판매되었다. 이 중 청소년과 학생을 위한 티켓은 239,276장으로 전체 관람객의 30%, 단체 관람객은 전체 관람객의 14%를 차지했다. 전체 관람객은 59%의 외국인 방문객과 41%의 이탈리아인으로 구성하고 있다(베니스 비엔날레 홈페이지, 2023).

마지막으로 128년의 긴 역사를 가진 베니스 비엔날레를 미술 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다섯 시기로 나누었고 <표 II-5>와 같다.

<표 II-5> 베니스 비엔날레의 시기별 분류

연 도	주 제
1895 ~ 1914	비엔날레의 시작과 전개
1920 ~ 1942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비엔날레
1948 ~ 1970	전후와 ‘혁명기’ 사이의 비엔날레
1972 ~ 1995	1세기 역사를 향하여
1997 ~ 2022	1세기 이후

※ 출처: 김정희(2005)의 문헌을 재구성함.

3) 선행연구를 통한 함의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예술축제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고 축제의 성공요인을 살펴본 뒤에 축제의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제주국제관악제의 효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경제적 가치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문화예술축제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상당히 단기간에 다양한 성과를 기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다 보니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황세연, 고정훈, 2021). 관주도적인 문화예술축제의 경우 지역주민이나 일반인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고,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관주도적인 축제를 기획하게 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축제를 운영하는 전문성이 부족하게 되므로 축제의 독창성을 갖기 힘들고 지역정체성도 찾기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축제를 포함한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성공요인 관련 연구들은 성공사례의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하거나(서희석, 윤정현, 2006),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성공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인재진, 2014). 이 연구들을 통해 음악축제를 중심으로 축제 성공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축제 프로그램의 독창성이 중요하다. 둘째, 공연장, 역사문화적 환경, 지리적 위치 등 축제 인프라가 중요하다. 셋째, 축제주관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넷째, 축제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제조직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다섯째, 축제는 관람객이 많이 방문해야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홍보와 마케팅 관리능력이 중요하다. 여섯째, 지역주민의 참여와 호응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윤동진, 김정희, 2016).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국내·외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우선 국내 사례를 보면, ‘거창국제연극제’는 연극인들의 노력으로 야외연극축제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행사주체와 전시의 정체성 변화 등으로 행사명이 자주 변경되었지만 ‘미디어’를 주제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주류영화와는 차별화되는 대안영화나 독립영화를

다루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외 사례에서는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의 경우, 다른 축제들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시 전체가 축제의 배경이 되면서 예술과 휴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는 실험성이 강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축제로 자리잡았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미술계의 올림픽’으로서 비엔날레를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공헌을 했다. 이와 같이 국내 문화예술축제들은 축제마다 독창성 및 차별성을 통해 축제로 정착하고 있으며, 국외 사례들은 문화예술축제가 이미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문화로서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축제 중 음악 축제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음악 축제들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국내 관광객들도 문화행사로 음악을 선호하므로 특별한 음악 콘텐츠를 연계한 축제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음악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음악 축제는 다른 공연예술축제에 비해 많지 않으며, 몇몇의 축제를 제외하고는 성공적 축제라고 불리기 어려울 만큼 지역적·장르적으로 편중이 심하다. 따라서 아이디어 및 차별화 전략을 통한 음악 축제가 개최될 수 있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박태환, 장민호, 2022).

이러한 점에서 제주국제관악제는 관악 중심의 특성을 지닌 음악 축제으로써 그리고 3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축제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외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축제의 흑자 운영은 제주국제관악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기존의 무료로 운영되는 축제에서 유료로의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만약 입장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제주국제관악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과연 얼마의 비용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제주국제관악제의 가치와 위상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축제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주국제관악제 현황 및 관련 연구

1) 개요

(1) 제주 관악의 역사

제주도에서 서양음악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중반부터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교육정책으로 보통학교가 1923년 4개교가 신설되었고, 1930년대 중반에 20여 개로 증가했다. 학교에서 관악대 활동의 시작은 군국주의 교육과 군사훈련 등의 필요성 등에 기인하였다(제주문화예술60년사, 2008). 일제에 필요에 의한 수단으로써 제주 관악이 시작되었지만, 1940년대부터 한국인 교사들에 의한 조직적인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를 제주 관악 음악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 관악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광복, 한국전쟁 등의 역사적 배경과 다양한 음악 활동을 바탕으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시기별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제주문화예술60년사, 2008). 제1기는 일제 말기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일제강점기로 인해 전쟁 수행을 위한 군국가요가 대부분었고, 몇몇 보통학교에서 관악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8·15 광복을 기점으로 격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1947년 제주초급중학교 관악대가 창설되었고, 이후 선무공작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제2기는 한국전쟁부터 1970년대까지의 시기이다. 한국전쟁으로 피난을 온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하게 되었다. 이들 중 피난 온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모슬포 훈련소군악대와 전쟁 고아로 구성된 한국보육원 관악대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1952년 미국 미주리 모벌리 태생인 찰스 길버트(Charles E. Gilbert) 소령이 제주도 C.A.C.(UN Civil Assistance Command / UN민간협력단체) 부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의 교수이고 대학의 콘서트밴드 지휘자였던 길버트 소령은 한국보육원, 제주중학교, 제주농업고등학교, 구세군고적대, 경찰악대 등을 지도 및 지원하고, 오현고등학교 관악대 창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제주에 체류한 약 1년 6개월 동안 그의 애정과 열정은 제주 관악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업적에 대한 현대적 평가를 세 가지로 정리

하면 전문가에 의한 최고의 관악대 프로그램, 음악을 통한 대민 지원의 모델 제시, 엘 시스템아(EI Sistema)의 선구자 역할 등으로 정리된다(장기범, 2016). 이후 오현고등학교 관악대의 활발한 활동은 제주 관악을 전국에 알렸다. 관악대의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1962년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부, 1973년 한국관악대지도자협회(현,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가 창립되었다. 이들 단체는 제주음악의 구심점이 되었다. 제3기는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시기이다. 제주대학교에 음악교육과가 개설되면서 전문음악인과 음악지도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토대로 1982년에 탐라관악합주단(1985년 제주시립합주단, 1987년 제주시립교향악단으로 변경), 1984년에 도내 최초로 제주실내악단이 창단되었다. 1994년 제주한라대학, 1995년 제주관광대학에 음악과가 개설되면서 고등학교 관악대 출신자의 음악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2년 제17회 대한민국관악제가 제주에서 개최되었고, 1994년 일본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에 제주고교연합악대가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제주의 관악인들은 국제적인 관악제를 구상하게 되었고, 1995년 제주국제관악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제4기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2000년 제5회 제주국제관악제는 관악을 주제로 앙상블축제와 국제관악콩쿠르가 함께 개최된 성공적인 국제적 음악축제로서 가능성을 보였다. 제주국제관악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성장했다. 이를 토대로 제주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미국 순회연주, 서귀포시립관악단의 일본 오키나와 공연 등 도내 음악단체들의 국제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관악 중심이었던 음악 활동은 다양한 장르의 기악 연주가 개최되고 기악 단체들의 창단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음악회와 국제적인 음악행사가 개최되어 음악으로 제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시기였다.

제주 관악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지만,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 결과 초·중·고교, 대학 등 학교에서 교악대가 활동하고 있다. 대학 입시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 밴드부가 해체되었지만 제주도에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학교 교악대뿐만 아니라 경찰, 일반 단체 등에서 관악단이 창단되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1998년 기초 자치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공립 관악 전문 연주 단체인 서귀포시립관악단이 창단되었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으로 명

칭이 변경되었고 지방 문화 예술의 진흥과 제주도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 관악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주국제관악제의 탄생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여진다.

제주 관악의 역사를 정리하면 <표 II-6>과 같다.

<표 II-6> 제주 관악 역사의 시대별 정리

구 분	주요 내용
제1기 (일제 말기 ~한국전쟁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3년 일제강점기에 보통학교 관악대 창설 - 1947년 제주초급중학교 9인조 관악대 창설, 선무공작대에서 다양한 활동 - 격변하는 시대에 선무공작 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음악 대중화의 첫 계기를 마련
제2기 (한국전쟁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 모슬포 제1훈련소 군악대 창설 및 다양한 활동(피난 온 음악인 중심으로 구성) - 1973년 한국관악대지도자협회 제주도지부 발족으로 관악 활성화 - 도내 중·고등학교에 관악대 창설과 예술제, 연주회 참가 등 활발한 활동
제3기 (1980년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개설, 후진 양성을 위한 음악지도자 배출 - 1982년 제주 최초 기악합주단인 탐라관악합주단 창단, 3년 후 제주시립합주단으로 승격, 현재 제주시립교향악단으로 존재 - 1992년 제17회 대한민국관악제, 1994년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제주고교연합악대 참가,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관악제를 국제행사규모로 확대하기로 구상 - 1995년 제주국제관악제 탄생
제4기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관악제의 발전과 향상 - 관악 및 기악 단체의 창단과 활발한 활동 - 다양한 음악단체의 창단 및 활동으로 제주도민 음악 수준 향상에 기여

※ 출처: 제주문화예술60년사(2008)의 문헌을 재구성함.

(2)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 및 발전과정

제주도는 맑은 공기와 물, 천혜의 풍광을 갖고 있고, “평화의 섬”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제주국제관악제는 기동력이 뛰어나고 야외연주가 용이한 관악의 특성을 바탕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평화의 이미지가 조화를 이룬 제주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이다(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2023).

제주국제관악제의 탄생과 발전과정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연도별 정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2020). 1992년 8월 15일 제17회 대한민국관악제가 제주에서 열렸고 제주도 고교연합악대가 개막공연에 출연했다. 제주도 고교연합악대는 1999년 제주페스티벌밴드(현 제주윈드오케스트라)가 출범하기 전까지 제주를 대표하는 관악 앙상블이었다. 1994년 8월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浜松)시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에 한국을 대표하여 제주고교연합악대가 참가하였고 이는 제주 관악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무대에 서는 기회였다. 이후 제주에 관악제를 유치하는 구상과 계획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1995년 8월 16일 오후 3시 제주해변공연장에서 제1회 제주국제관악제의 막이 올랐다. 4개국 24팀 1,501명이 참가했으며, 제주해변공연장, 서귀포 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 등 야외공연장이 조성되었다. 이는 제주 관악인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든 국제관악제가 빛을 보게 되었고 격년제로 시작되었다. 1997년 제2회 관악제에서는 성산일출봉, 함덕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제주도 전역을 축제의 무대로 만들었다. 1998년 제3회 관악제에서는 일본, 대만, 독일, 한국에서 참가한 소규모 전문앙상블축제가 열렸다. 대중성과 축제성이 강한 콘서트밴드축제는 홀수 해에,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앙상블축제는 짝수 해에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1999년 제4회 관악제부터 제주시가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이 시기부터 홀수 해에 개최하던 밴드축제와 짝수 해의 앙상블축제를 통합해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축제에는 8개국 40팀 2,300명이 참가하여 대규모 축제로 성장하게 되었다. 2000년 제5회 관악제에서는 앙상블축제와 함께 국제관악콩쿠르가 개최되었다. 국제관악콩쿠르는 차세대 세계 관악을 이끌 재능있는 젊은 관악인들을 발굴, 육성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콩쿠르에는 호른, 트럼펫, 트롬본, 유

포니움, 튜바, 금관5중주 등 6개 부문에 8개국 85명이 참가했다. 2001년 제6회 관악제에서는 제주국제관악제에 기여한 공로로 세계적 관악 지휘 작곡가 알프레드 리드, 유럽에 제주를 알린 관악제의 주역 윤중현, 1회부터 계속 참가한 지휘자 예수한에게 제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2002년 제7회 관악제에서는 제주페스티벌밴드의 명칭을 제주윈드오케스트라로 변경하였고, 관악제의 활성화로 인해 제1회 제주지역 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2003년 제8회 관악제에서는 아시아태평양관악협회(APBDA) 이사회와 관악세미나 <세계 여러 나라의 관악 현실과 발전방향>이 제주시청에서 개최되었다. 2004년 제9회 관악제는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제주대회와 동시에 개최되었고, 문화부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사업(A+)으로 선정되었다. 2005년 제10회 관악제에서는 10주년을 기념하여 관악캠프와 제1회 대한민국 동호인관악단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제주윈드오케스트라는 8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주국제관악제 10주년 기념 공연인 ‘서울에서 만나는 제주국제관악제’ 콘서트를 공연했다. 2006년 제11회 관악제에서는 11개국 28팀 2,110명이 참가한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 제주대회가 동시에 개최되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대행사로는 ‘미술과 소리의 만남’ 주제의 제주국제설치미술제가 열렸다. 2007년 제12회 관악제부터 공동 주최 파트너가 제주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 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의 시행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2008년 제13회 관악제에서는 2월 28일 사단법인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렸으며, 3월 28일 제주윈드오케스트라가 만프레드 슈나이더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 제14회 관악제에서는 제주국제관악콩쿠르가 유네스코(UNESCO) 산하기구인 세계국제음악콩쿠르연맹(WFIMC) 공식 가입하였다. 승인 요건이 까다롭지만 연맹에 가입하면 국제적 공신력을 바탕으로 제주국제관악제의 위상과 대외 홍보 효과가 뛰어나고 수준 높은 음악인들이 참가한다.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1, 2위 입상자에게 병역면제의 혜택을 준다. 그리고 관악제에서 신종플루 확진자가 발생해 폐막일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졌다. 2010년 제15회 관악제에서는 5월 19일 제주아트센터가 개관하였고 개관기념 축하음악회에 제주윈드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었다.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김태

훈(베이스트롬본)이 1위에 입상하였다. 2011년 제16회 관악제에서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 앞의 클라리넷 소녀’인 유인자 여사가 제주국제관악제 경축음악회에서 그 당시 연주했던 ‘매기의 추억’을 다시 연주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제1회 국제U-13관악대 경연대회가 개최되었고, 제주국제관악제 매거진 ‘공명’이 창간되었다. 2012년 제17회 관악제에서는 밴드축제, 앙상블축제, 관악콩쿠르를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는 홀수 해에 트럼펫, 호른, 테너트롬본, 금관 5중주를, 짝수 해에 베이스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타악기를 4개 부문씩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3년 제18회 관악제에서는 6월 19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 개관하였고 어영노을 관악제가 개최되었다. 2014년 제19회 관악제에서는 길버트 소령의 친딸인 다이안 아놀드 여사를 초청하였다. 그리고 제1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가 2004년에 이어 제주국제관악제와 동시에 개최되었다. 2015년 제20회 관악제에서는 제주출신 재일동포 작곡가 박수현씨가 제주민요 ‘봉지가’를 기반으로 작곡한 20주년 기념곡 ‘축제의 봉지가’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개막공연으로 첫선을 보였다. 2016년 제21회 관악제에서는 우리동네관악제가 이중섭거리 옛 서귀포관광극장, 우도, 대정하모체육관을 새로운 무대로 신고식을 치렀다. ‘동호회’에 무대를 내주는 등 일반과 가까워지는 관악제의 변화를 보여줬다. 2017년 제22회 관악제에서는 해녀문화와 함께 하는 관악제가 신설되었고, 프랑스크드봉원드오케스트라가 관악 뮤지컬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2018년 제23회 관악제 개막공연에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호른리스트 펠릭스 클리저(Felix Klieser) 두 연주자가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과 제주윈드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제주연합윈드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다. 도두 해녀공연단은 독일 로렐라이에서 초청 공연을 했고, 성산포 해녀공연단은 캐나다 키치너워털루 옥토버페스트에 참가하였다. 2019년 제24회 관악제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 경축 공연에서 도내외 시민합창단 350여 명과 제주국제관악제연합관악단의 합동공연으로 안익태의 ‘한국환상곡’이 펼쳐졌다. 6명의 한국 작곡가들이 제주를 주제로 한 관악합주곡을 창작하였고 임대홍 지휘자와 울산대학교 심포닉 밴드의 연주로 발표한 연주회 개최하였다. 2020년 제25회 관악제에서는 스티븐 미드(Steven Mead) 예술감독을 초청하여 겨울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하였고, 제주관악제 25년사인 ‘섬, 그 바람의 울림’을 발간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기간이 축소되었고, 제15회 제주국제관악·타악

콩쿠르 1, 2차 예선이 영상심사로 대체되었다. 2021년 제26회 관악제에서는 겨울 시즌을 도입해 제주국제관악제를 여름 시즌과 겨울 시즌으로 개최하였다. 제1회 제주관악작곡콩쿠르가 개최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효과의 확산을 위해 영상물 제작에 다규형식을 도입하였다. 2022년 제27회 관악제는 여름 시즌과 가을 시즌으로 개최되었고, 세계 최정상 관악단인 영국 코리밴드가 개막공연을 하였다. 제일교포 작곡가 박수현 씨가 제주민요를 주제로 목관 5중주곡으로 작곡한 ‘제주민요 모음곡’이 앙상블 ‘모인’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올해 2023년 제28회 관악제는 처음으로 봄 시즌을 도입해 봄 시즌과 여름 시즌으로 개최된다. 봄 시즌에서 주요 공연으로 재즈콘서트가 첫선을 보이고, 캐나다 출신 트럼펫 연주자인 옌스 린더만(Jens Lindemann)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6명의 정상급 연주자가 무대에 선다.

지금까지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 및 발전과정을 정리하면 <표 II-7>과 같다.

<표 II-7> 제주국제관악제 연도별 정리

연 도	주 요 내 용
1995 (제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 프랑크푸르트음악박람회에서 제1회 제주국제관악제 홍보 - 8.16 제1회 제주국제관악제 개막 - 4개국 24개팀 1,501명 참가(초청연주자 3명), 12회 공연
1997 (제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국 27개팀 1,668명 참가(초청연주자 9명), 17회 공연 - 음악도를 위한 유명연주가 6명의 15회 공개강좌
1998 (제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국 16개팀 700명 참가(초청연주자 5명), 14회 공연 - 홀수 해에는 밴드축제, 짝수 해에는 앙상블축제를 열기로 함 - 제1회 제주국제관악제-앙상블축제 개막 - 2.6 서귀포시립관악단 창단
1999 (제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국 40개팀 2,300명 참가(초청연주자 13명), 27회 공연 - 제주시와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가 공동 개최 및 연례화 - 제주페스티벌밴드(현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창단 - 자원봉사자 공개 모집 - 보드니안스키 등 10명 전문 공개강좌

2000 (제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국 32개팀 1,120명 참가(초청연주자 13명), 26회 공연 - 제1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막(호른, 트럼펫, 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금관 5중주), 8개국 67명 참가
2001 (제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국 56개팀 2,985명 참가(초청연주자 17명), 25회 공연 - 알프레드 리드, 예수한, 윤중헌 등에 제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 한국지휘자협회와 지휘 캠프 공동 주최
2002 (제7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국 31개팀 1,831명 참가(초청연주자 14명), 22회 공연 - 제주페스티벌밴드 제12회 아시아·태평양 관악제 한국대표로 참가 -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 제1회 제주지역 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 개최
2003 (제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국 44개팀 2,640명 참가(초청연주자 19명), 30회 공연 - 제주페스티벌밴드 상설화 추진
2004 (제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국 77개팀 3,560명 참가(초청연주자 42명), 39회 공연 - 제13회 아시아·태평양 관악제 제주대회 개막 - 제주국제관악제와 아시아·태평양 관악제 동시에 개최 - 문화부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사업(A+) 선정
2005 (제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국 25개팀 2,800명 참가(초청연주자 14명), 39회 공연 - 제주국제관악제 11시 콘서트 신설 - 10주년 기념 제1회 대한민국 동호인관악단 경연대회 개최 -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주국제관악제 10주년 기념 공연(서울에서 만나는 제주국제관악제)
2006 (제1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국 52개팀 3,300명 참가(초청연주자 37명), 31회 공연 -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 제주대회 개막(11개국 28팀 2,110명 참가) - 제주국제관악제 부대행사로 ‘미술과 소리의 만남’ 주제의 제주국제설치미술제 개막
2007 (제1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국 47개팀 2,650명 참가(초청연주자 17명), 38회 공연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 - <관악으로 엮은 제주민요집> 발간 음악회
2008 (제1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국 30개팀 1,800명 참가(초청연주자 43명), 36회 공연 - 사단법인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 제주윈드오케스트라, 만프레드 슈나이더 작품세계 조명 연주회

<p>2009 (제14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국 32개팀 2,616명 참가(초청연주자 14명), 39회 공연 -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유네스코(UNESCO) 산하 세계국제음악콩쿠르연맹(WFIMC) 공식 가입 - 신중플루 여파로 행사일정 축소 - 예수한 예술감독 위촉, 우리동네 관악제 신설, 밴드 올레 신설, 마에스트로 콘서트 등 특별기획 공연에 유료티켓 발행
<p>2010 (제15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국 20개팀 1,849명 참가(초청연주자 17명), 33회 공연 - 제주아트센터 개관기념 제주윈드오케스트라(지휘 리드 토머스) 연주 - 김태훈(베이스트롬본), 제주국제관악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 입상 - 제주민요를 품은 창작곡과 세계의 민요 관악곡들 공연
<p>2011 (제16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국 25개팀 2,418명 참가(초청연주자 14명), 36회 공연 - ‘이승만 대통령 앞의 클라리넷 소녀’ 유인자 여사, 제주국제관악제 경축음악회에서 ‘매기의 추억’ 연주 - 제1회 국제 U-13관악대 경연대회 개막 - 제주국제관악제 매거진 ‘공명’ 창간
<p>2012 (제17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국 28개팀 1,520명 참가(초청연주자 9명), 42회 공연 - 제주국제관악제, 밴드 축제와 앙상블 축제, 관악콩쿠르 통합 운영 -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 4개 부문씩 격년 개최(홀수 해는 트럼펫, 호른, 테너트롬본, 금관 5중주, 짝수 해는 베이스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타악기)
<p>2013 (제18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국 44개팀 2,182명 참가(초청연주자 10명), 42회 공연 - 서귀포 예술의 전당 개관 - 어영노을 관악제 개최
<p>2014 (제19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국 44개팀 2,243명 참가(초청연주자 18명), 41회 공연 - 제18회 아시아·태평양 관악제 제주대회 개막 - 대구학생문화원에서 대구에서 만나는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 제주국제관악제에 길버트 소령 친딸 다이안 아놀드 여사 초청
<p>2015 (제20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국 43개팀 1,874명 참가(초청연주자 17명), 39회 공연 - 제주출신 재일동포 작곡가 박수현씨가 제주민요 ‘봉지가’를 기반으로 작곡한 20주년 기념곡 ‘축제의 봉지가’를 개막공연에서 초연

2016 (제2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개국 52개팀 2,797명 참가(초청연주자 18명), 47회 공연 -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 - 우리동네관악제 추자도 공연
2017 (제2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개국 140개팀 3,527명 참가(초청연주자 16명), 52회 공연 - 해녀문화와 함께 하는 관악제 신설 - 프랑스 쿠드봉윈드오케스트라, 관악 뮤지컬 첫선
2018 (제2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개국 139개팀 3,748명 참가(초청연주자 22명), 48회 공연 - 경축음악회에 시민연합합창단 출연 - 국제호른협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 호른 부문 우승자에게 미화 1000달러 특별상
2019 (제2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개국 91개팀 4,189명 참가(초청연주자 24명), 45회 공연 - 6명의 한국 작곡가들이 제주를 주제로 한 관악합주곡을 창작, 임대홍 지휘자와 울산대학교 심포닉 밴드의 연주로 발표한 연주회 개최
2020 (제2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국 13개팀 353명 참가(초청연주자 23명) - 제주국제관악제 코로나19로 축소 개최 - 제15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 1, 2차 예선이 코로나19로 영상심사 - 제주국제관악제 25년사 발간
2021 (제2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개국 16개팀 416명 참가(초청연주자 38명) - 겨울 시즌 도입, 제주국제관악제를 여름 시즌과 겨울 시즌으로 개최 - 제1회 제주관악작곡콩쿠르 개막 -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상효과 확산을 위해 영상물 제작에 다큐형식 도입
2022 (제27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개국 64개팀 2,873명 참가(초청연주자 31명) - 제주국제관악제를 여름 시즌과 가을 시즌으로 개최 - 세계 최정상 관악단인 영국 코리밴드 개막공연 - 재일교포 작곡가 박수현 씨가 제주민요를 주제로 목관 5중주곡으로 작곡한 '제주민요 모음곡'이 앙상블 '모인'의 연주로 초연
2023 (제2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관악제를 봄 시즌과 여름시즌으로 개최 - 봄 시즌에서 재즈콘서트가 첫 선을 보이고 라이징스타·앙상블콘서트, 제주관악 작곡 콩쿠르 결선 개최

※ 출처: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20)의 문헌을 재구성함.

2) 관련 선행연구

제주국제관악제는 다양한 내용과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상철(1996)은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제주국제관악제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송재호, 고계성(2000)은 기대-성과 불일치이론을 바탕으로 성격이 다른 제주도 국제시민마라톤대회와 국제관악제를 비교분석하고 방문자 만족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김지혜(2007)는 제주관악의 역사와 한국 관악의 역사를 비교 분석하였고, 문지혜(2009)는 제주국제관악제의 표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은정 등(2009)은 제주국제관악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사회통합적, 정치선진적, 문화발전적, 산업적 측면 등 4부문으로 나누어 제주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김태관(2011)은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비교분석을 통해 음악축제 활성화 요인에 관해 분석 연구하였다. 이찬영(2013)은 공연예술축제의 사례를 기반으로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 자원봉사자의 만족 향상을 위한 운영체계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윤동진(2015)은 제주국제관악제의 국제화 과정을 국제화 이전단계, 초기단계, 성장단계, 확대단계, 성숙단계로 분류하고 경험지식의 축적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촉진 요인으로, 외국비용을 저해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윤동진, 김경희(2016)는 제주국제관악제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축제 재원 확충, 시스템에 의한 운영, 전문성을 강조하는 축제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장기범(2016)은 찰스 길버트(Charles E. Gilbert)의 교육적 배경과 전문성을 통해 제주에서의 업적을 재조명하였으며, 그 시사점을 논의하고 평가하였다. 양정철 등(2018)은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조부환(2018)은 마케팅 전략으로 첫째는 7P를 파악한 후 전문가 양성, 통합관리를, 둘째는 관악지도자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내용, 방법 등의 발전을, 셋째는 관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 사회 등의 관악음악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황찬휘(2018)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연구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조직위원회 관계자와 인터뷰 등을 통한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고혜영 등(2019)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을 통해 제주국제관악제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므로 제주지역 문

화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제주국제관악제의 선행연구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표 II-8>과 같다.

<표 II-8> 제주국제관악제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논문제목
이상철(1996)	문화관광 이벤트로서의 제주국제관악제 활성화 방안
송재호, 고계성 (2000)	축제방문객의 기대-성과 불일치 : 제주도 국제시민마라톤대회와 국제관악제의 비교분석
김지혜(2007)	한국의 관악 발전사와 제주의 관악 발전사에 대한 비교 연구
문지혜(2009)	제주국제관악제의 발전 방향
이은정, 황경수, 고태호(2009)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경제 사회적 영향 분석
김태관(2011)	음악축제 활성화 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찬영(2013)	공연예술축제 자원봉사자 운영체계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제주국제관악제를 중심으로
윤동진(2015)	음악축제의 국제화 과정과 요인: 제주국제관악제를 중심으로
윤동진, 김정희 (2016)	제주국제관악제의 성공요인과 과제
장기범(2016)	Charles E. Gilbert의 제주 관악대 업적에 대한 내러티브와 평가
양정철, 이관홍, 황경수(2018)	제주국제관악제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제안 연구
조부환(2018)	국제관악제의 마케팅 전략 연구
황찬휘(2018)	제주국제관악제 현황 분석을 통한 교육적 가치 고찰
고혜영, 양정철, 임정현, 황경수 (2019)	제주국제관악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3) 효과 및 한계

제주국제관악제는 28년 간의 성장과 발전과정을 거쳐 국제적인 음악축제로 발돋움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통영국제음악제, 대관령국제음악제와 함께 3대 국제음악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음악축제에 관한 연구에서 제주국제관악제의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축제의 지속성이다. 제주국제관악제는 28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개최되었고 성장했다. 둘째, 축제의 독특성이다. 제주국제관악제는 피아노, 현악, 관현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관악 분야에 초점을 맞춘 축제이다. 셋째, 축제의 공연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악 연주자들이 적극 참가하고 있다. 넷째, 축제의 기여도이다. 제주도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윤동진, 김정희, 2016).

제주국제관악제의 효과를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경제적 효과는 2008년에 발표한 제주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을 산정하여 분석한다. 사회문화적 효과는 사회통합적, 문화발전적, 정치 선전적, 산업적 등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는 관악단 순회연주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공연을 중심으로 주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문화발전적 측면은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특설무대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이 확대되었고, 제주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 및 관악작품들을 발굴하고 보급하였다. 정치 선전적 측면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역 홍보를 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지역 은행, 악기 관련 기업 등 민간부문과 도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공서의 후원이 있었고, 제주국제관악제를 통해 제주지역 메세나운동도 조금이나마 실현되었다(이은정 등, 2009).

현대사회의 축제는 경제적 도구로 인식되어 지역의 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경향이 있다. 축제의 산업화라는 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지자체에서 축제를 개발하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오훈성, 2014). 제주국제관악제가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제주지역 투입산출표’에 기반한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국제관악제의 생산유발효과가 2017년 9,056,430,000원에서 2018년 18,709,179,000원으로 2.1배가 증가하였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7년 4,229,480,000원에서 2018년 9,199,030,000원으로 2.2배 증가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증가한 원인으로 참가자 수와 체류일 수 증가, 국내외 관람객 수 증가, 준비 및 운영 예산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분석이다(고혜영 등, 2019). 축제로서의 제주국제관악제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참가하는 관광객에게 축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부가적인 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제주국제관악제는 성공한 음악축제라는 평가가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한 관객부족, 조직위원회 사무국의 전문인력 부족 및 한시적 운영문제, 대중성과 전문성 혼재 등의 한계가 있다(윤동진, 김정희, 2016). 제주국제관악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만족도 설문조사와 자체평가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첫째, 예산확보를 통한 사무국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각 공연장을 연결하는 교통의 편리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셋째,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도록 국제관악제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공연장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역 문화예술 시설의 기반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공연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양정철, 이관홍, 황경수, 2018). 제주국제관악제를 개최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국제관악제의 프로그램을 제주 전역 곳곳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제주지역 내 공기업 및 향토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혜영 등, 2019).

3. 문화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평가

1) 문화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

(1) 경제적 가치 개념

문화예술 활동은 그 자체로서의 고유가치인 본질적 가치가 있고, 일련의 경제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는 재화나 서비스 그 자체이거나 내재적 가치로 그 자체가 목적이다.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는 재화나 서비스가 인간들의 효용 또는 후생에 영향을 주어 화폐가치화가 가능한 가치이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시장재, 비시장재와 관계 없이 인간들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의 정도인 선호(preferences)와 선택(choices)에 기초한다(홍성필 등, 2011).

경제적 가치는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된다. 사용가치는 인간이 현재의 생산과 소비 행위에 환경을 직접 연관시켜 발생하는 가치를 말한다. 비사용가치는 사용가치를 제외한 가치를 통틀어서 말한다. 비사용가치는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산가치(bequest value)로 세분된다. 선택가치는 현재 직접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 사용가치는 없으나 미래 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비시장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말한다. 존재가치는 사람들이 비록 희귀종, 특정 자연자원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이로부터 얻는 편익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단지 그것들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가치를 말한다. 유산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자연자원 등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을 통해 느끼는 가치를 말한다(유승훈, 2020).

이를 문화예술축제에 적용하여 ‘문화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 종류’로 정리하면 <표 II-9>와 같다.

<표 II-9> 문화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 종류

가치의 종류		내 용
사용가치		문화예술축제의 직접적 방문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가치
비사용 가치	선택가치	비록 당장은 문화예술축제를 방문할 계획이 없어도 앞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가치
	존재가치	비록 앞으로 문화예술축제를 방문할 가능성이 없어도 단지 문화예술축제가 개최되는 것만으로도 좋은 가치
	유산가치	우리의 후손들에게 문화예술축제를 물려줄 수 있는 가치

※ 출처: 이종연 등(2015)의 문헌을 재구성함.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가격은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표출된 가치는 시기와 사람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2) 문화예술축제의 가치평가 방법

공공재 성격이 큰 문화예술축제와 같은 비시장재화는 일반 재화와 다르게 시장기구에 의해 그 가치를 제대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자원경제학에서 자원 이용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신백수, 2005). 문화예술축제와 같은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현시선호접근법(Revealed Preference Method; RP)과 진술선호접근법(Stated Preference Method; SP)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시선호접근법은 평가 대상인 비시장재화가 기술적 또는 구조적으로 연관 있는 사적 시장재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진술선호접근법은 비시장재화의 거래가 가능한 가상시장을 설정하여 비시장재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심기섭, 2021). 현시선호접근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여행비용접근법(Travel Cost Method; TCM)과 헤도닉가격기법(Hedonic Price Method; HPM)이 있고, 진술선호접근법은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컨조인트분석법(Conjoint Analysis

Method)이 대표적이다. 현시선호접근법은 시장에서 경제주체의 거래행위를 관찰하여 가치를 추정하므로 사후적 평가법이며, 진술선호접근법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상적 시장을 설정하여 가치를 추정하므로 사전적 평가법이라고 할 수 있다(류영호, 2018).

현시선호접근법은 적용할 때 진술선호접근법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적용대상에 제약이 있고, 비이용가치가 반영될 수 없으므로 이론적으로 볼 때 과소추정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반면에 진술선호접근법은 고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하고 적용대상의 제약이 없다. 따라서 고비용이 단점이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진술선호접근법이 현시선호접근법에 비해 바람직하며, 이런 이유로 조건부가치추정법과 같은 진술선호접근법이 보다 널리 적용되고 있다(박재석 등, 2011).

<표 II-10> 현시선호접근법 및 진술선호접근법 비교

구분	현시선호접근법	진술선호접근법
직접적 추정법	경쟁시장에서의 가격	조건부가치추정법
간접적 추정법	여행비용접근법 헤도닉가격기법	컨조인트분석법
특징	시장에서의 거래행위 관찰 사후적 평가법	가상적 시장 이용 사전적 평가법

※ 출처: 이종연 등(2015).

① 여행비용접근법 (Travel Cost Method; TCM)

여행비용접근법(Travel Cost Method; TCM)은 Hotelling이 1947년에 미국 국립공원국(National Park Service)으로 보낸 편지에서 처음 제안한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방법 중에 가장 먼저 제안된 방법으로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그 재화와 관련 있는 시장에서의 소비행위와 연관시켜서 간접적으로 추정한다(박현 등, 2004). 여행비용접근법은 목적지까지 소요된 교통비용과 시간의 기회비용을 기초로 하여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함윤주, 이주석, 2021).

여행비용접근법은 종속변수에 따라 크게 지역여행비용접근법(Zonal Travel Cost Method; ZTCM)과 개인여행비용접근법(Individual Travel Cost Method; ITCM)으로 구별될 수 있다(주수현 등, 2014). ZTCM은 지역별(zonal) 총인구 대비 방문객의 비율인 방문율(visitation ratio) 정도만 구하여 분석하면 되지만, ITCM은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의 방문횟수(number of visits) 및 개인의 특성변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필수적이고 ZTCM에 비해 요구되는 정보의 양이 많다고 볼 수 있다(이종연 등, 2015).

현시선호평가법의 대표적 방법론인 여행비용접근법은 대부분 여가와 관련된 가치평가에 있어 역사적으로 오래된 방법이며 적용사례도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비용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행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에 여행목적 사이에 시간과 화폐의 기회비용을 분배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지극히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여행비용접근법은 결정적으로 사용가치만 측정이 가능하고 비사용가치에 대한 편익은 측정할 수 없다. 셋째, 여행비용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시간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류영호, 2018).

② 헤도닉가격기법 (Hedonic Price Method; HPM)

헤도닉가격기법(Hedonic Price Method; HPM)은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시장재화의 가격으로부터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며, Adelman & Griliches(1961)에 의해 개발되었고, Rosen(1974) 등의 연구에 사용되면서 이론적 기초가 완성되었다(강하나, 2019). 이 방법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정 재화가 가지는 비시장적인 요인들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으로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 때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여 재화를 분해하고 각각의 요인에 대해 가치를 설정하는 모형이다(박재석 등, 2011).

HPM은 주로 기존의 부동산 가격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TCM이나 CVM이 쉽게 빠지는 조사자의 주관과 자의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설명변수들 간의 심한 다중공선성을 제거하려고 통계학적 숙련이 상당한 수준으로 필요하고 비사용가치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HPM은 TCM과 같이 측정 대상이 되는 가치의 범주가 사용가치만으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CVM을 통하여 측정가능한 가치인 비사용가치는 TCM이나 HPM을 이용한 측정이 불가능하다(신백수, 2006). 따라서 비시장가치나 비사용가치를 추정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환경재 등의 가치평가에 사용되고 있다(강하나, 2019).

③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1950년대 말부터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그 대표적인 방법들이 앞서 언급한 여행비용접근법과 헤도닉가격기법이다. 두 모형은 이용자의 의사결정 형태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적당한 추정함수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이 도출되었다(박재석 등, 2011).

CVM은 각 개인의 공공재 이용과 관련이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이 상황에서 각 개인의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공공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정 공공재를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 공공재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사용가치뿐 아니라 비사용가치도 반영할 수 있다(권오상, 1999). 데이비스(Robert K. Davis)가 처음으로 제안한 이 방법은 초기에는 ‘입찰게임(bidding game)’으로 불렸으나, 가상적 상황을 제시한 후 그 가치를 직접 설문한다는 의미로서 근래에는 ‘가상적 가치평가방법’ 또는 ‘조건부가치추정법’으로 명명되고 있다(김사현, 2020).

CVM은 강한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간접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및 간접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대상 모두에게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CVM은 선호를 표현하려는 응답자의 의사와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CVM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가치를 추정하려면 설문지 작성 및 설문과정 등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CVM의 논쟁이었던 전략적 행위, 가상성, 의향과 행동의 상관관계 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박현 등, 2004).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득의 발생 상황에서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CV)는 사업 시행 이전의 효용 수준을 기준으로 개선된 상황을 확보하

기 위하여 개인들이 지불하려는 최대의 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 EV)는 이득의 포기에 대한 대가로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Willingness To Accept: WTA)을 뜻한다. 반면에 악화되는 상황의 경우에 보상변화는 개인들이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는 대신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보상금액(WTA)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등변화는 악화되는 상황의 방지를 위해서 지불하려는 최대금액(WTP)이라고 볼 수 있다(안상훈 등, 2008).

공공사업에서 편익측정 개념을 요약하면 <표 II-11>과 같다.

<표 II-11> 공공사업에서 편익측정 개념의 구분

구분	이득	손실
보상변화(CV)	확보하기 위한 WTP	수용할 WTA
동등변화(EV)	포기하는 대가로 WTA	방지하기 위한 WTP

※ 출처: 안상훈 등(2008).

④ 컨조인트분석법(Conjoint Analysis Method)

컨조인트분석법(Conjoint Analysis Method)은 대표적인 속성들 여러 개를 사용하여 가상적인 재화의 성격을 규정한 후에 가상적인 재화 각각의 프로필(카드) 별로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응답자 개개인이 재화의 속성에 대한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얼마만큼의 효용수준을 부여하는지를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컨조인트분석법은 응답자들에게 다양한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효용극대화의 추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재화의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심기섭, 2021).

CVM의 경우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한가지 속성 변화에 따른 지불의사액만을 추정한다. 이러한 CVM이 가진 단점을 극복한 컨조인트분석법은 다중속성(multiple attribute)들로 이루어진 환경영향들과 응답자의 지불의사액 사이에 상충관계들을 동시에 추정이 가능하다(Adamowicz, Boxall, Williams, & Louviere,

1998; Mackenzie, 1993). 컨조인트분석법이 CVM과의 차이점은 설문지 응답자에게 주어진 재화의 화폐적 평가를 제시하는 질문을 직접 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특정 속성 대안들을 포함한 선택이나 선택집합을 제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박현 등, 2004).

컨조인트분석법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조사(market research)를 통해 급속하게 발전했다. 교통계획분야에서 일반적인 시장기법으로서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교통정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데 유용성을 확인하는 연구와 공공교통의 사용 가치 및 비사용가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영국의 교통부와 미국의 NOAA 에서는 CVM과 더불어 컨조인트분석법을 정식기법과 유용한 기법으로 채택하였다. 컨조인트분석법은 Adamowicz, Louviere, & Williams(1994)에 의해 환경가치 측정분야에서 최초로 적용된 이후 최근에 그 적용사례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컨조인트분석법의 적용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이종연 등, 2015; Adamowicz et al., 1994; Pearman, 1994).

다양한 문화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론 중 학계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론으로 CVM을 채택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첫째,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고 응용을 거듭해 온 연구방법론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공감을 얻는 방법론이다. 둘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200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2008), ‘비시장재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CVM 조사의 제시금액 분석을 중심으로’(2009),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2012),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2015), ‘삶의 만족도 접근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가치평가’(2015), ‘조건부가치추정모형(CVM) 개선을 위한 방법론 연구’(2017)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연구 보고서와 연구 지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따르면서 연구할 수 있다. 셋째, 여러 선행연구에서 꾸준히 사용되었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이다.

2) 조건부가치측정법(CVM)

(1) 이론적 배경

토양침식(soil erosion)의 방지 편익을 다루는 Ciriacy-Wantrup(1947)의 연구에서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하면서 CVM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약 16년 후 야생동물에 대한 농부의 행동에 관심이 있던 사회심리학자 Davis(1963)가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제품이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유사하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시장재에 대한 가상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Krutilla(1967)의 ‘Conservation Reconsidered’ 라는 논문이 발표되고 CVM의 적용이 점점 확대되게 된다(유승훈,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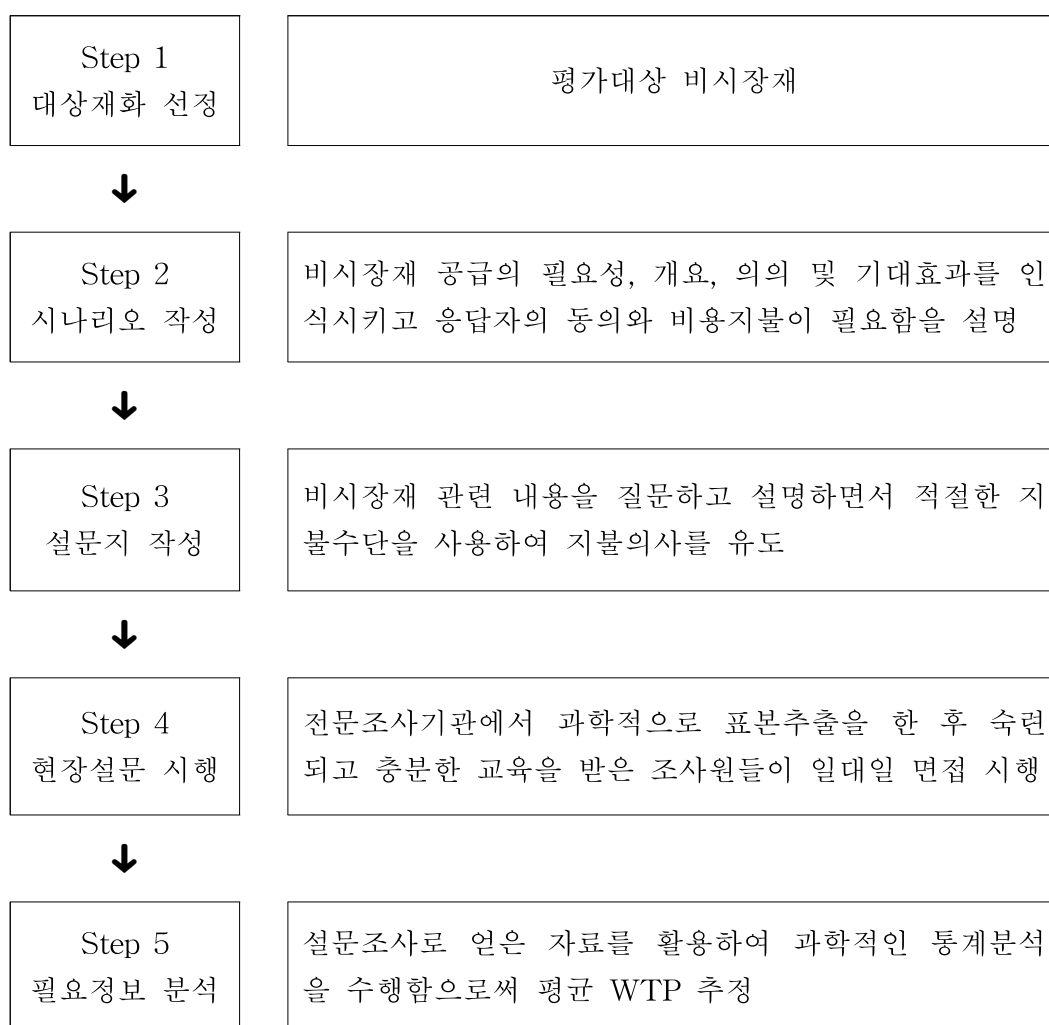
이후 엑손 발데즈호 기름유출사고(the Exxon Valdez Oil Spill)를 기점으로 진술선호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당시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정도를 화폐가치화 하는 과정에서 존재가치를 포함한 비사용가치를 추정 방법으로 CVM을 검토하였다(Arrow, Solow, Portney, Leamer, Radner, & Schuman, 1993). 진술선호접근법을 가치추정방법으로 사용하는 데 얼마나 신뢰하는지 질문하고 답하기 위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한 것이다(강진영, 2022). 미국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은 노벨경제학자들을 포함해서 Blue Ribbon Panel을 구성한 후에 CVM의 타당성과 CVM을 사용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등이 전면 재검토되었다. 이 패널의 보고서는 CVM이 존재가치도 포함하는 환경피해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으로서 CVM의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CVM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NOAA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장준경 등, 2012; Arrow et al., 1993).

(2)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 절차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 과정은 조사방법론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과정과 유사한데 대체로 [그림 II-8]과 같이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선 1단계에서는 평가대상(대상재화)을 설정하고 2단계에서는 설정대

상에 대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면서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묘사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3단계는 CVM을 적용하는데 예상되는 여러 편익(bias)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보완하고 작성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단계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설문조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설문 결과로부터 얻어진 자료들을 활용하여 WTP의 대표값을 분석한다(박재석 등, 2011; 유승훈, 2020).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일반적인 적용 절차는 [그림 II-8]과 같다.



[그림 II-8]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일반적인 적용 절차

※ 출처: 유승훈(2020)의 문헌을 재구성함.

① 가상시나리오

CVM은 무작위 추출된 응답자들에게 정확하게 정의된 비시장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WTP를 직접 질문해서 응답자들의 선호를 화폐의 단위로 도출하는 방법이다. 설문지의 구성 요소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가상 시나리오의 작성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장준경 등, 2012).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가상 상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상 시나리오에는 추진하려는 사업의 규모와 기간, 대상지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그로 인해 응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제시하여 응답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다혜, 2018).

② CVM의 편의(bias)

CVM 등과 같은 진술선호접근법을 이용해야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다양한 공공재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CVM의 다양한 편의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CVM의 편의는 가상적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가설적 편의와 CVM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들로 나눌 수 있다. 시나리오 설문구성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편의로는 전략적 편의, 출발점 편의, 정보 편의, 관계 편의 등이 있고, 분석 단계에서는 소득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이진권, 2009).

가설적 편의(hypothetical bias)는 가상적 상황에서 응답자가 지불의사를 밝힌 금액과 동일한 실제 상황에서 응답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하는 편의를 말한다. 이는 CVM 분석이 가질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전략적 편의(strategic bias)는 설문대상자들이 자신의 응답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자신의 진실된 WTP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WTP를 응답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의를 의미한다. 출발점 편의(starting point bias)는 일정금액을 제시하여 WTP가 유도되는 경우에 제시된 금액이 설문대상자에게 그 금액을 ‘정답’으로 생각하도록 해서 실제 WTP를 도출하는데 실패할 수 있는 편의를 일컫는다. 정보 편의(information bias)는 설문조사의 본질과 상관없는 정보가 제시되어 WTP 응답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편의이다. 관계 편의(relational

bias)는 참고하기 위해서 설명한 다른 재화(reference goods)가 연구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평가대상 재화의 가치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 발생하는 편의를 말한다. 지불수단 편의(vehicle bias)는 세금, 기금, 입장료, 사용료 등 지불수단에 따라 설문대상자들이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다르게 나타내는 편의를 일컫는다. 순응적 편의(compliance bias)는 재화에 관심있는 경우에는 진실을 응답하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설문조사원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대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편의이다(권오상, 1999; 유승훈, 2020; 이진권, 2009).

위의 언급한 CVM의 편의를 정리하면 <표 II-12>와 같다.

<표 II-12> CVM의 편의

편 의	내 용
가설적 편의 (hypothetical bias)	가상상황에서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과 실제상황일 때 지불의사금액이 불일치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
전략적 편의 (strategic bias)	응답자의 설문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경우 WTP를 다르게 표시해서 발생하는 문제
출발점 편의 (starting point bias)	설문지에 제시되는 금액의 영향을 받아 WTP를 결정하는 문제
정보 편의 (information bias)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관계 편의 (relational bias)	참고하기 위한 다른 재화가 평가대상 재화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 발생하는 문제
지불수단 편의 (vehicle bias)	지불수단에 따라 응답자들이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문제
순응적 편의 (compliance bias)	조사자의 의견이 응답에 개입되고 반영이 될 때 발생하는 문제

※ 출처: 권오상(1999), 유승훈(2020), 이진권(2009)의 문헌을 재구성함.

③ 지불의사 유도방법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입찰게임(bidding game),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 지불카드(payment card), 양분선택형 질문(dichotomous choice question) 등이 있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에 따라 WTP의 추정값이 서로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어 지불의사 유도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체로 지불의사 유도방법 중에서 지불카드방법과 양분선택형방법이 다른 방법들보다 좀 더 나은 것으로 추천되었다. 지불카드방법은 개방형 질문이나 입찰게임 방법보다는 상대적으로 편의를 줄일 수 있고, 비용측면에서도 양분선택형 질문보다 저렴하다(안상훈 등, 2008).

<표 II-13> CVM의 지불의사 유도방법

지불의사 유도방법	내 용
입찰게임 (bidding ga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VM 초기 연구에서 자주 쓰이던 방식으로 응답자들에게 특정 초기금액을 주고, 이를 통해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응답자의 진정한 WTP에 수렴하도록 반복적으로 입찰하는 방법. 출발점 편의 및 ‘예-예’ 발언 편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방형 질문 (open-ended ques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시장재에 대한 최대지불의사를 직접적으로 찾아내는 방법. 대체로 비시장재에 대해서 구매경험이 없고 생소하기 때문에 무응답률이 높거나 제로 가치 또는 이상치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지불카드 (payment c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적은 보조자료를 주면서, 확실히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에는 √표시를 하고, 확실히 지불할 의사가 없는 금액에는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전략적 편의의 우려가 있음.
양분선택형 질문 (dichotomous choice ques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제시금액을 응답자들 간에 무작위로 배분한 뒤, 일정한 금액의 제시 이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하는 방법. 몇 번 물어보는지에 따라 단일경계 양분선택형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으로 구분.

※ 출처: 장준경 등(2012)의 문헌을 재구성함.

입찰게임(bidding game)은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Randall, Berry, & Eastman(1974)에 의해 고안되었다. 입찰게임에는 단순입찰게임(single bidding game)과 반복입찰게임(iterative bidding game)이 있다. 단순입찰게임은 조사자가 설문대상의 상황과 기존의 환경여건을 그대로 제시하고 나서 응답자가 기존의 환경여건을 원래대로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려는 액수를 제시하도록 하여 얻어진 금액들의 평균값을 구한 후 연간 전체 이용자 수를 곱해서 총 지불의사 금액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반복입찰게임은 응답자에게 설문대상을 위해 특정 금액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 대답이 “예”이면 제시금액을 높이고 계속 질문한다. 제시금액을 높여서 계속 질문하다가 어느 수준의 금액에 이르면 응답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질문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WTP나 WTA를 구하려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입찰게임의 장점은 조사자가 숙련되면 응답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가까운 WTP나 WTA를 잘 유도할 수 있지만, 조사자가 가장 먼저 제시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최종 경매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출발점 편향(starting point bias)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신백수, 2006).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은 응답자에게 특정 재화에 대해 얼마까지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응답자의 의사를 제일 존중하는 방법으로, 연구자의 주관이나 의견이 개입되지 않아 출발점 편향(starting point bias)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평소에 응답자가 해당 재화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설문내용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질문에 당황하여 응답을 회피하거나 터무니없이 크거나 적은 금액을 응답할 수 있다(강하나, 2019).

지불카드법(payment card)은 비슷한 소득수준의 소비자들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현재 지불하는 평균금액을 우선 제시해주고, 응답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최대 지불의사액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지불카드법은 Hanemann(1978)이 가장 먼저 사용하였으며, Mitchell & Carson(1981) 및 Boyle & Bishop(1984)이 좀 더 발전시켰다. 이 방법은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지불의사액(보상잉여)을 도출하기 위해 계량분석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응답자의 개인별 특성이 지불의사액에 작용하는 영향만 분석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이 매우 간편하다는 점과 개방형 질문법에서 응답의 어

려움과 입찰게임법에서 출발점 편倚(starting point bias)를 해결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그러나 지불카드법은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지불내역과 평가대상 재화 간에 연관성이 있다면 고정점 편倚(anchoring point bias)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김기령, 2021).

양분선택형 질문법(dichotomous choice)은 입찰게임법, 개방형 질문법, 지불카드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Bishop & Heberlein(1979)이 최초로 도입한 방법으로 응답자들은 가상시장의 상황에서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간단히 “예” 또는 “아니오”로만 응답하면 된다. 만약 제시금액이 응답자의 WTP보다 같거나 적으면 “예”로 응답하고 반대로 크다면 “아니오”로 대답하면 된다. 이 방법은 응답자의 선택과정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무응답자와 설문 참여 거부자를 감소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즉,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대다수 응답자가 비시장재화에 대해 독립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배려한 방법으로서 전화, 개별 면담, 우편 설문 등 모든 종류의 설문조사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한 단계에서만 지불의사금액을 묻는 방법을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ing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SB-DC) 질문법이라고 한다. Hanemann et al.(1991)은 SB-DC 질문의 장점을 살리고 WTP 추정치가 높은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 2단계에 걸쳐서 양분선택형 질문을 하게 되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질문법을 제안하였다. DB-DC 질문법은 처음 제시 금액에 대해서 응답자가 수용할 경우(“예”)에는 그보다 높은 금액(일반적으로 두 배)을 한 번 더 제시하고, 반면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아니오”)에는 최초 제시액보다 낮은 금액(일반적으로 1/2배)을 한 번 더 제시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 범위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도출되므로 SB-DC에 비해 통계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응답률이 높고 다른 방법보다 전략적 편倚, 출발점 편倚의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때문에 NOAA는 CVM 조사방법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대다수 CVM과 관련된 연구에서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차재혁, 2017; Arrow et al. 1993; Hanemann, 1984).

(3) 연구설계 지침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은 특정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의 도출을 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Kenneth Arrow와 Robert Solow를 포함한 6명의 경제학자로 구성된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패널의 보고서를 통해 CVM의 신뢰성이 인정되면서 더욱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NOAA 패널의 보고서는 CVM의 무분별한 사용과 더불어 비현실적인 가치 추정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II-14>와 같다(권오상, 1999).

<표 II-14> NOAA 패널의 지침

순서	내 용
1	전화나 우편을 이용한 조사가 아니라 개별적인 면접조사에 근거해야 한다.
2	수용의사액(WTA)보다 지불의사액(WTP)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불의사 질문법을 통해 특정 제시값에 대해서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양분선택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고려 중인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해야 한다.
5	응답된 WTP의 지불로 인해 다른 재화에 대한 지출이 감소되어야 함을 인식시킨다.
6	대상재화에 대한 대체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7	응답자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성적인 대답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질문이 있어야 한다.

※ 출처: Arrow et al.(1993).

(4) 추정모형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추정법(DC-CVM) 모형으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WTP의 대표값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은 Hanemann(1984)이 제안한 효용격차모형(utility difference model)과 Cameron & James(1987)가 제안한 WTP함수접근법 두 가지가 있다. 효용격차모형이 효용이론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 WTP함수접근법보다 효용격차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이 모형의 운용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먼저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모형화한다. 즉, “예” 또는 “아니오”의 이산응답을 모형화한 후 최우추정법으로 관련 모수들을 추정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분포의 성격과 중앙값 또는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하여 WTP의 중앙값 또는 평균값을 계산한다. 이 모든 절차와 관련하여 이종현 등(2015)이 제시한 설명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가 본인의 효용함수를 정확히 알고, 주어진 화폐소득(m)과 개인의 특성벡터(S)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축제의 상태(j)에 대해 느끼는 효용은 다음과 같은 간접효용함수 u 로 표현될 수 있다.

$$u = u(j, m; S), \quad j = 0, 1 \quad (\text{식 2-1})$$

여기서, $j = 0$ 은 문화예술축제를 이용할 수 없거나 문화예술축제가 보존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j = 1$ 은 문화예술축제를 이용할 수 있거나 문화예술축제가 보존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연구자에게는 응답자가 측정대상인 문화예술축제의 상태변화를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데 관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관측 가능한 확정적인 부분 $v(j, m; S)$ 과 관측 불가능한 확률적 부분 ϵ_j 로 구성된다.

$$u(j, m; S) = v(j, m; S) + \epsilon_j \quad (\text{식 2-2})$$

간접효용함수에 영향을 주는 확률적 성분인 ϵ_j 는 j 에 관계없이 독립적이면서

동일하게 분포를 갖는(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확률변수로서 평균은 0이다. 각 개인이 효용을 최대화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각 개인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당신은 문화예술축제의 이용을 위해 또는 문화예술축제의 보존을 위해 A 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는 대답을 하면서 A 를 기꺼이 지불함으로써 효용을 최대화한다.

$$v(1, m - A; S) + \epsilon_1 \geq v(0, m; S) + \epsilon_0 \quad (\text{식 2-3})$$

또는

$$v(1, m - A; S) - v(0, m; S) \geq \epsilon_0 - \epsilon_1 \quad (\text{식 2-4})$$

이제 효용의 격차와 오차항의 격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begin{aligned} \Delta v(A) &\equiv v(1, m - A; S) - v(0, m; S) && (\text{식 2-5}) \\ \eta &\equiv \epsilon_0 - \epsilon_1 \end{aligned}$$

그렇다면 “예”라는 응답을 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r\{\text{응답이 “예”}\} = \Pr\{\Delta v(A) \geq \eta\} \equiv F_\eta[\Delta v(A)] \quad (\text{식 2-6})$$

여기서 $F_\eta(\cdot)$ 는 η 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다. “예”라는 응답은 $\Delta v \geq 0$ 일 때 관측되고, “아니오”라는 응답은 $\Delta v < 0$ 일 때 관측된다. 지금부터 C 로 표기할 때 WTP는 확률변수로서 이의 누적분포함수는 $G_c(A)$ 로 정의된다. 한편 (식 2-6)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

$$\Pr\{\text{응답이 “예”}\} = \Pr\{C \geq A\} \equiv 1 - G_c(A) \quad (\text{식 2-7})$$

따라서 (식 2-6)과 (식 2-7)의 비교를 통해 다음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1 - G_c(A) \equiv F_\eta[\Delta v(A)] \quad (\text{식 2-8})$$

이 결과는 이산반응모형 (식 2-6)을 알맞게 하는 것이 곧 WTP의 분포함수인 $G_c(\cdot)$ 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때 C 는 $j = 0$ 의 상태에서 $j = 1$ 의 상태로의 변화를 하기 위한 WTP이다. 그리고 C 가 음의 값도 가질 수 있을 때의 평균(C^+)은 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 = E(C) = \int_0^\infty [1 - G_c(A)] dA - \int_{-\infty}^0 G_c(A) dA \quad (\text{식 2-9})$$

또한 중앙값 $WTP(C^*)$ 은 다음의 방정식을 C 에 대해 풀어서 구할 수 있다.

$$G_c(C) = 0.5 \quad (\text{식 2-10})$$

만약 WTP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면, 이때의 평균값 $WTP(C^{++})$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 = \int_0^\infty [1 - G_c(A)] dA \quad (\text{식 2-11})$$

여기서 도출된 값은 1인에 해당하는 가치이므로, 전체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려면 모든 개체에 평가된 가치를 더해 주거나 평균값에 개체수를 곱해 주면 산출된다(권오상, 1999).

3) 문화예술축제와 조건부가치추정법(CVM)

선행연구에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연구들을 선정하였다. CVM을 이용한 축제 관련 연구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어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아 지역축제로 확장하여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신백수(2006)는 CVM으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해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분석방법은 예시금액이 제시된 개방형 질문법, 추정모형의 logit, 지불수단은 입장료, 조사방법은 온·오프라인 조사로 분석하였다. 허중욱(2007)은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 추정을 통해 정선아리랑제의 원형을 유지, 개선하여 후대에 원형을 향유할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정선아리랑제, 분석방법은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SB-DC), 추정모형은 logit, 지불수단은 축제기금,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분석하였다. 한상현(2008)은 CVM을 이용하여 부산국제영화제의 수요모형을 도출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국제영화제, 분석방법은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추정모형은 logit, 지불수단은 공공기금,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분석하였다. 심상화(2009)는 CVM을 이용해서 WTP를 추정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와 발전에 유용한 자료로 쓰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강릉단오제, 분석방법으로 예시금액이 제시된 개방형 질문법, 추정모형은 logit, 지불수단은 발전기금,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분석하였다. 김채옥 등(2010)은 CVM을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 추정을 하고 기획 방향에 혼선을 빚고 있는 축제의 발전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하이서울페스티벌, 분석방법은 개방형 질문법, 추정모형은 logit, 지불수단은 축제지원금,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분석하였다. 이충기, 김태균(2010)은 갯벌 생태관광의 진정한 가치를 얻기 위해 가설적 편의(hypothetical bias)를 최소화하고자 실제 상황을 설정하고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은 보령머드축제, 분석방법은 DB-DC, 추정모형은 logit, 지불수단은 환경보존기금,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분석하였다. 주수현, 정성호(2010)은 부산불꽃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투입의 타

당성에 대한 사전단계 연구로 CVM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불꽃축제, 분석방법은 DB-DC, 추정모형은 Log-Logistic Model과 Log-Nomal Model, 지불수단은 세금,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분석하였다. 이성근, 김규섭(2011)은 CVM을 이용하여 소규모 지역축제인 함양산삼축제의 비시장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함양산삼축제, 분석방법은 DB-DC, 추정모형은 logit, 지불수단은 유지기금,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분석하였다. 이우경, 이성근(2012)은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산자인단오제, 분석방법은 DB-DC, 추정모형은 logit, 지불수단은 입장료,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분석하였다. 정찬영, 이훈(2014)은 축제 졸업 이후 축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축제 입장료로 전환하는 정책을 가정하고 CVM을 이용하여 지불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김제지평선축제, 분석방법은 DB-DC, 추정모형은 logit, 지불수단은 입장료, 조사방법은 온라인조사로 분석하였다. 한상현(2014)은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과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축제 개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시 소규모 지역축제(2곳), 분석방법은 DB-DC, 추정모형은 logit, 지불수단은 축제기금,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분석하였다. 송운강 등(2015)은 축제의 수익을 통한 축제의 평가와 달리 방문객의 효용측면에서 CVM을 이용한 축제의 가치를 측정하고자 했으며 이를 정책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산천어축제, 분석방법은 DB-DC, 추정모형은 probit, 지불수단은 입장료, 조사방법은 온라인조사로 분석하였다. 김정준(2016)은 내·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축제 콘텐츠개발과 지역경제의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화천산천어축제, 분석방법은 DB-DC, 추정모형은 logit, 지불수단은 입장료,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분석하였다. 이주경, 김세준(2016)은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의 공공지원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주세계소리축제, 분석방법은 DB-DC, 추정모형은 logit, 지불수단은 기부금,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분석하였다. 부창산(2019)은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의존비율이 높은 성산일출제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성산일출제, 분석방법은 DB-DC, 추정모형은 logit, 지불수단은 입장료,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분석하였다. 채경진, 조일형(2019)은 산, 꽃이라는 공공성이 강하고 자생적인 지역축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CVM을 이용한 WTP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천시 봄꽃축제, 분석방법은 DB-DC, 추정모형은 logit, 지불수단은 입장료,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분석하였다. 안효례, 신흥철(2020)은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 입장료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세계불꽃축제, 분석방법은 SB-DC, 추정모형은 logit, 지불수단은 관람료, 조사방법은 온·오프라인 조사로 분석하였다. 정다운 등(2023)은 관광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축제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 추정으로 정책투자 등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강몽땅여름축제, 분석방법은 DB-DC, 추정모형은 logit, 지불수단은 입장료,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B-DC)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과 개방형 질문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추정모형에 있어서는 주로 로짓모형(Logit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대부분 면접조사로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 온라인으로만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불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가치를 중심으로 추정하는 입장료와 비사용가치를 추정하는 기금과 기부금으로 구분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설계와 연구 방법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VM의 축제 선행연구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표 II-15>와 같다.

<표 II-15> CVM의 축제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연구대상	분석방법	추정모형	지불수단	조사방법
신백수(2006)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방형질문법	logit	입장료	온·오프라인
허중욱(2007)	정선아리랑제	SB-DC	logit	축제기금	면접
한상현(2008)	부산국제영화제*	DB-DC	logit	공공기금	면접
심상화(2009)	강릉단오제	개방형질문법	logit	발전기금	면접
金彩玉 외 (2010)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방형질문법	logit	축제지원금	면접
이충기 외 (2010)	보령머드축제	DB-DC	logit	환경보존기금	면접
주수현 외 (2010)	부산불꽃축제	DB-DC	Log-Logistic Log-Nomal	세금	면접
이성근 외 (2011)	함양산삼축제	DB-DC	logit	유지기금	면접
이우경 외 (2012)	경산자인단오제	DB-DC	logit	입장료	면접
정찬영 외 (2014)	김제지평선축제	DB-DC	logit	입장료	온라인
한상현(2014)	부산시소규모지역축제(2곳)	DB-DC	logit	축제기금	면접
송운강 외 (2015)	화천산천어축제	DB-DC	probit	입장료	온라인
김정준(2016)	화천산천어축제	DB-DC	logit	입장료	면접
이주경 외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	DB-DC	logit	기부금	면접
부창산(2019)	성산일출제	DB-DC	logit	입장료	면접
채경진 외 (2019)	부천시봄꽃축제	DB-DC	logit	입장료	면접
안효례 외 (2020)	서울세계불꽃축제	SB-DC	logit	관람료	온·오프라인
정다운 외 (2023)	한강몽땅여름축제	DB-DC	logit	입장료	면접

주 : * 는 문화예술축제임.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표본 선정

1) 연구 대상 및 표본 선정

본 연구는 제주국제관악제를 1회 이상 관람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지역 선정은 대한민국 전역을 원칙으로 했다. 입장료를 지불수단으로 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상자는 관악제를 경험한 관람객을 표본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관악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악제 입장료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표본 선정을 관악제 경험한 관람객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사전조사에서 관악제를 경험한 제주도민 38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금액을 4개로 산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2023년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 관람객과 기존 제주국제관악제를 1회 이상 관람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 118명, 온라인 설문조사 182명 총 300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에서 263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통계분석을 통해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고자 한다.

2) 변수 선정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설명변수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관람객의 행태, 연구의 필요성 등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다음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분석한 설명변수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신백수(2006)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설명변수 중 제시금액, 소득수준, 거주구분, 이용만족도, 관광객유치가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상현(2008)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연구 대상으로 제시금액, 직업, 숙박, 참가횟수, 관람편수, 재방문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김채옥 등(2010)은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연구 대상으로 성별, 지속개최희망, 수정보안필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주경, 김세준(2016)은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연구 대상으로 거주지, 방문경험, 필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창산(2019)은 성산일출제를 연구 대상으로 지불금액,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채경진, 조일형(2019)은 부천시 봄꽃축제를 연구 대상으로 설명변수 중 제시금액, 성별, 거주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안효례, 신흥철(2020)은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연구 대상으로 지불금액, 연령, 불꽃축제 관광 중요도, 문화예술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다운 등(2023)은 한강몽땅여름축제를 연구 대상으로 제시금액, 장소애착, 거주지가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같은 설명변수가 연구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표본의 선정이나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는 일반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연구방향에 따라 다양한 설명변수를 만들고 통계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CVM을 이용한 연구에서 다수의 연구가설은 ‘설명변수가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로 나타났으며, 설명변수에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서 분석하므로 여러 가지의 가설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CVM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없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설명변수의 선행연구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설명변수의 선행연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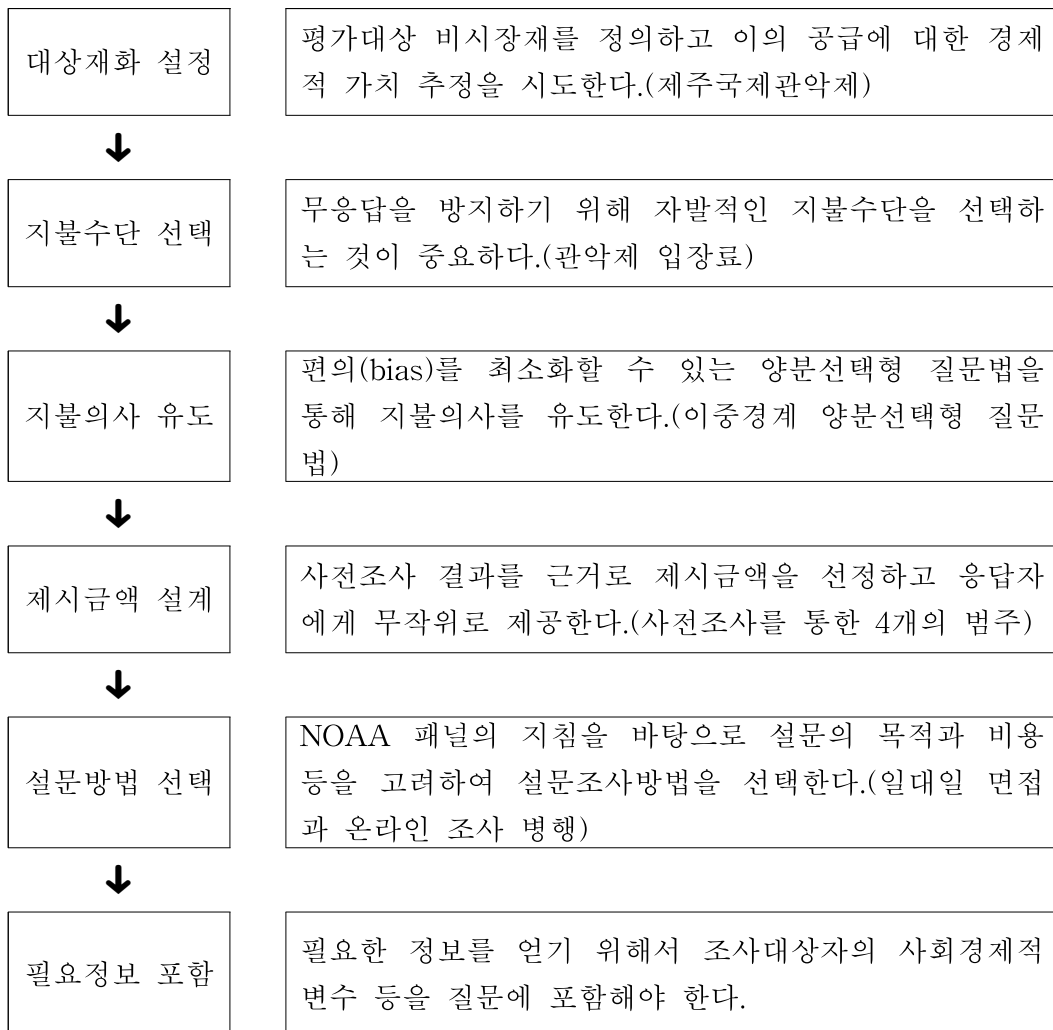
연구자	연구 대상	설명변수
신백수(2006)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제시가격, 성별, 연령, 거주구분, 직업정도, 교육수준, 소득수준, 이용만족도, 경제교류효과, 관광객유치, 방문횟수, 방문유형
한상현(2008)	부산국제영화제*	제시금액, 성별, 연령, 혼인여부, 직업, 소득, 학력, 대도시 거주자, 숙박, 참가횟수, 연간관람횟수, 관람편수, 만족도, 재방문의사, 과거방문경험, 동호회가입, 영화선호도
金彩玉 외 (2010)	하이서울페스티벌*	성별, 연령, 지역주민여부, 직장유무, 프로그램만족도, 지속개최희망, 서울이미지제고, 수정보완필요
이주경 외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	제시금액, 성별, 연령, 소득, 거주지, 학력, 축제인지, 방문경험, 재방문경험, 만족도, 필요성
부창산(2019)	성산일출제	지불금액, 성별, 연령(30대, 40대, 50대, 60대), 소득, 교육수준, 방문경험
채경진 외 (2019)	부천시봄꽃축제	제시금액,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소득, 방문경험, 동행인 여부, 체류시간
안효례 외 (2020)	서울세계불꽃축제	지불금액, 연령, 소득, 교육수준, 불꽃축제 관광 중요도, 문화예술성
정다운 외 (2023)	한강몽땅여름축제	제시금액, 장소애착(장소감정), 방문경험여부, 성별, 결혼여부, 거주지, 교육수준, 가계소득

주 : * 는 문화예술축제임.

2. 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에 의한 설계

1) 설문지 설계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설문지의 설계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문지는 작성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NOAA 패널의 지침에 따라 설문지를 설계하였고, 설문지의 작성 절차는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설문지 작성 절차

(1) 가상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들의 입장료 지불의사를 조사하기 위해 가상 상황을 설정하였다. 제주국제관악제의 개최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가상 상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축제를 지속하기 위해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입장료를 받고자 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응답자들의 지불의사가 있는 입장료는 제주국제관악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술되었다. 구체적인 가상 상황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 ‘제1회 제주국제관악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8년째 개최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축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국제관악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입장료」를 받고자 합니다.

입장료는 제주국제관악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 ▶ 제주국제관악제 홍보 및 마케팅
- ▶ 유명 연주자 공연
- ▶ 공연장 안전관리
- ▶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 공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2) 지불수단의 선택

지불수단을 선택할 경우 응답자들의 신뢰와 수용의지가 중요하다. 지나치게 가상적인 지불수단은 피해야 하고, 문화예술축제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서 채택될 것 같은 지불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불수단은 강제적인 수단과 자발적인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제적인 지불수단으로는 입장료, 세금, 부담금, 수수료, 가격인상 등이 있다. 지불수단이 강제적인 수단으로 채택되었을 때 응답자들이 강제적인 지불수단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기부금 또는 선물 등 자발적인 지불수단은 무임승

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건부가치추정법에서 연구자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안상훈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이고 강제적인 지불수단으로 입장료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불수단으로 입장료를 채택하였다.

(3) 지불의사 유도방법의 선택

한 번만 질문을 하는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방법보다 추가로 한 번 더 후속질문을 하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방법이 통계적 효율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또한 편의와 비효율성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의 측면에서 단일경계모형이나 삼중경계모형보다 이중경계모형이 더욱 바람직하다(박재석 등, 2011). 양분선택형 질문법의 추정모형을 비교하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양분선택형 질문법의 추정모형 비교

모형	장 점	단 점
단일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선택 행위와 비슷한 방식 • 응답자의 부담이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음 • 추정치의 통계적 효율성 낮음
이중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경계모형에 비해 더 많은 정보의 확보가 가능 • 추정치의 통계적 효율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응답편의의 발생가능성이 존재 • 두 질문의 응답에서 오는 비일관성 문제 발생 가능

※ 출처: 박재석 등(2011)의 문헌을 재구성함.

응답자의 현실적인 WTP를 알기 위해 높은 응답률, 조사원과 응답자의 편의(bias) 감소, 비합리한 WTP 배제 등을 고려하여 지불의사 유도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OAA 패널의 지침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양분선택형 질문법 중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에서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가치를 추정하는데 통계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반영하였

다. 하지만 단점으로 지적된 응답자 편의는 편의의 해결방안을 통해 편의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4) 설문조사기법 선정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응답자들의 WTP를 유도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지므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CVM 연구에서는 설문조사기법으로 면접조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NOAA 패널의 지침에서도 추천하고 있다. 면접조사는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용이하며, 복잡한 질문을 융통성있게 할 수 있어 CVM의 설문조사에 적합하다. 또한, 면접조사는 사진이나 팸플릿 등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표본 통제의 가능성이 크므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할 수 있다. 설문조사원이 일대일 면접조사하기 때문에 항목별 무응답률을 낮출 수 있고, 설문 자체에 대한 응답률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안상훈 등, 2008). 온라인조사는 빠른 실사, 저렴한 비용, 대상자 조건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할 때 사용되고 있다. 공연장의 특성상 일대일 면접조사의 한계, 관악제를 경험한 관람객 등 면접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 조사도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NOAA 패널의 지침을 바탕으로 설문의 목적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대일 면접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설문조사방법을 정하였다.

(5) 제시금액 설계

CVM에서 제시금액은 WTP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의 깊은 제시금액 설계를 필요로 한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한 CVM 연구에서 제시금액의 분포는 문항별 응답과 WTP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시금액의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Hanemann & Kanninen(1999)은 양분선택형 질문법에서 사전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로부터 초기 제시금액의 설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전조사를 실시하기 전 표본을 선정할 경우에 본 설문조사와 같이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 문제로 인해 편의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또한, 본 설문조사의 지불의사 유도방법을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하더라도 사전조사에서는 개방

형 질문을 활용하여 도출된 WTP로 제시금액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준경 등, 2012). 한국개발연구원(2012)의 보고서에 의하면 초기 제시금액은 사전조사 결과로부터 얻은 WTP 분포의 15%부터 85%까지의 범위 내에서 4가지에서 6가지의 금액으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38부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얻은 WTP 분포의 15%부터 85%까지의 범위 내에서 응답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10,000원부터 40,000원까지 4개의 금액으로 구분하였고, 이 제시금액을 전체 응답자 중 무작위로 4개 그룹에 균등하게 할당하였다.

<표 III-3> 제시금액 설계

제시금액(원)	표본(명)	비율(%)	누계(%)
10,000	75	25	25
20,000	75	25	50
30,000	75	25	75
40,000	75	25	100
합계	300	100	

(6)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의 해결방안

CVM의 설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표 III-4>와 같이 해결방안을 적용하였다. 출발점 편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현실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불수단의 편익을 없애기 위하여 관악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수단으로 입장료를 사용하였고, 전략 편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조사는 개방형 질문법을, 본 조사는 응답자들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였다. 또, 정보 편익과 가설적 편익을 줄이기 위해 관악제의 간단한 역사 및 현황을 소개하고, 가상상황을 실제상

황에 맞게 설정하고 관악제를 경험한 관람객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면접조사에서 숙련된 조사원을 교육하고 설문조사에 투입함으로써 순응적 편의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표 III-4> 편위의 해결방안

편의	본 연구에서 해결방안
출발점 편의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설계하고 사전 조사를 실시함
지불수단 편의	입장료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함
전략 편의	사전조사는 개방형 질문법을 하고 본 조사에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함
정보 편의	제주국제관악제에 관한 간단한 역사 및 현황을 제시함
가설적 편의	가상상황을 최대한 현실상황과 같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관악제를 경험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조사함
순응적 편의	숙련된 조사원을 교육하고 설문조사에 투입함

2)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모형

앞서 설명변수를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람객 행태로 선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GEN), 연령(AGE), 학력(EDU), 소득(INC)으로, 관람객 행태는 관람 횟수(FRE), 관람 시간(TIM), 만족도(SAT), 즐거움(ENJ), 재관람의도(REV), 추천의도(WOM), 공연감상(LIS), 여가생활(LEI), 교육목적(STU), 직무관련(REL), 주변권유(REC)로 구성되었다.

<표 III-5> 설명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	변수구성
일반적 특성	성별(GEN)	응답자의 성별 (1=남자, 0=여자)
	연령(AGE)	응답자의 연령 (개방형 질문)
	학력(EDU)	응답자의 학력 (1=중학교 졸업 이하, 2=고등학교 졸업, 3=대학교 재학, 4=대학교 졸업, 5=대학원 이상)
	소득(INC)	응답자의 월 평균소득 (1=200만원 미만, 2=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500만원 이상)
관람객 행태	관람횟수(FRE)	관악제 관람횟수 (개방형 질문)
	관람시간(TIM)	관악제 관람시간 (1=30분 미만, 2=30분~60분 미만, 3=60분~90분 미만, 4=90분~120분 미만, 5=120분 이상)
	만족도(SAT)	관악제에 대한 만족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즐거움(ENJ)	관악제에 대한 즐거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재관람의도 (REV)	관악제에 대한 재관람의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추천의도 (WOM)	관악제에 대한 추천의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공연감상(LIS)	관람목적으로 공연감상 (1=있다, 0=없다)
	여가생활(LEI)	관람목적으로 여가생활 (1=있다, 0=없다)
	교육목적(STU)	관람목적으로 교육목적 (1=있다, 0=없다)
	직무관련(REL)	관람목적으로 직무관련 (1=있다, 0=없다)
	주변권유(REC)	관람목적으로 주변권유 (1=있다, 0=없다)

조사대상자는 제주국제관악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최초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할 의사를 “있다” 또는 “없다”로 답한다. 이와 같은 폐쇄형 질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이성근, 김규섭, 2011).

$$\Pr(yes) = (1 + e^\alpha) \quad (\text{식 3-1})$$

$\Pr(yes)$ = 응답자가 제시금액에 관해 “있다”라고 대답할 확률
 α = 추정된 계수, 즉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독립변수(설명변수) 중 유의한 계수

그리고 1인당 입장료 지불의사를 추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확률분포인 로지스틱함수를 적용하고 분석하였다. 로짓모형의 함수식은 (식 3-2)이며, 로짓모형은 누적분포함수의 함수형태로 로지스틱함수를 가정하였다(이성근, 김규섭, 2011).

$$F[dV] = \frac{1}{1 + \exp^{-dV}} \quad (\text{식 3-2})$$

이와 같은 확률모형의 추정된 결과로부터 1인당 입장료 지불의사금액(WTP)은 중앙값과 평균값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선형로짓모형의 통계적 추정방법으로 최우추정법이 사용되고 그 추정계수는 유효추정량이고 일치추정량이다. 이를 근거로 지불의사금액(WTP)의 중앙값과 평균값은 (식 3-3)과 (식 3-4)를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이성근, 김규섭, 2011).

$$WTP \text{ 중앙값} = \frac{\alpha}{-\beta} \quad (\text{식 3-3})$$

$$WTP \text{ 평균값} = \frac{1}{-\beta} \ln(1 + e^\alpha)^{-1} \quad (\text{식 3-4})$$

IV.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제주국제관악제의 입장료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설문조사에 사용될 제시금액을 도출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의 초기 제시금액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2023년 3월 18일부터 4월 14일까지 제28회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 공연장에서 현장 설문조사와 관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현장 설문조사 118명, 온라인 설문조사 182명으로 총 3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NOAA 패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온·오프라인 동시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300부의 설문지 중에서 263부의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초통계분석은 SPSS 24를 사용하였고, 제주국제관악제의 입장료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STATA 14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1> 설문조사방법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전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
설문조사기간	2023년 3월14일 ~ 15일	2023년 3월 18일 ~ 4월 14일
설문조사방법	개별 면접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한 제주도민	제주국제관악제 관람객 및 관람 경험자
표본 수	38	30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기초통계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및 연령

제주국제관악제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남자 136명(51.7%), 여자 127명(48.3%)으로 남자가 다소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83명(31.6%), 30대 42명(16.0%), 40대 75명(28.5%), 50대 48명(18.3%), 60대 13명(4.9%), 70대 2명(0.8%)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많았다. 20대가 많은 것은 초·중·고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관람한 경험이 있고 자원봉사자로 참석했던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 성별

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자	136	51.7
	여자	127	48.3
	합 계	263	100.0

<표 IV-3> 연령

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연령대	20대	83	31.6
	30대	42	16.0
	40대	75	28.5
	50대	48	18.3
	60대	13	4.9
	70대	2	0.8
	합 계	263	100.0

(2) 학력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117명(44.5%), 대학원 이상 79명(30.0%), 대학교 재학 56명(21.3%), 고등학교 졸업 10명(3.8%), 중학교 졸업 이하 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 학력

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	0.4
	고등학교 졸업	10	3.8
	대학교 재학	56	21.3
	대학교 졸업	117	44.5
	대학원 이상	79	30.0
	합 계	263	100.0

(3) 거주지역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제주 248명(94.3%), 경기·인천 7명(2.7%), 서울 5명(1.9%), 대전·충청 1명(0.4%), 광주·전라 1명(0.4%), 대구·부산·경상 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이 홍보 부족 등의 영향으로 타 지역 관람객 및 전체 관람객 수가 적었고, 제주지역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IV-5> 거주지역

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거주지역	제주	248	94.3
	서울	5	1.9
	경기/인천	7	2.7
	대전/충청	1	0.4
	광주/전라	1	0.4
	대구/부산/경상	1	0.4
	합 계	263	100.0

(4) 직업

응답자의 직업은 학생 65명(24.7%), 기타 58명(22.1%), 전문직 50명(19.0%), 회사원 41명(15.6%), 자영업 23명(8.7%), 공무원 14명(5.3%), 주부 11명(4.2%), 농축수산업 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 직업

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직업	회사원	41	15.6
	전문직	50	19.0
	공무원	14	5.3
	농축산업	1	0.4
	자영업	23	8.7
	주부	11	4.2
	학생	65	24.7
	기타	58	22.1
	합 계	263	100.0

(5) 월 평균소득

응답자의 월 평균소득은 200만원 미만 89명(33.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4명(28.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명(15.2%), 500만원 이상 36명(1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4명(9.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7> 월 평균소득

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89	33.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4	28.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	15.2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4	9.1
	500만원 이상	36	13.7
	합 계	263	100.0

2) 기초통계분석

(1) 관람 횟수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한 응답자의 관람 횟수는 1회~5회 199명(75.7%), 6회~10회 41명(15.6%), 16회~20회 9명(3.4%), 11회~15회 8명(3.0%), 21회 이상 6명(2.3%) 순으로 나타났다. 관람 횟수 5회 이하가 75.7%를 차지하는 것은 올해로 28회를 맞이하는 제주국제관악제를 매년 참가하는 관객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8> 관람 횟수

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관람 횟수	1회 ~ 5회	199	75.7
	6회 ~ 10회	41	15.6
	11회 ~ 15회	8	3.0
	16회 ~ 20회	9	3.4
	21회 이상	6	2.3
	합 계	263	100.0

(2) 정보 경로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정보의 경로는 현수막, 포스터, 팸플릿 등 홍보자료 76명(28.9%), 주변 지인 75명(28.5%), TV·라디오 등 언론매체 43명(16.3%), SNS 27명(10.3%), 기타 19명(7.2%), 인터넷 14명(5.3%), 무응답 9명(3.4%) 순으로 나타났다. 과반에 가까운 20대, 30대의 응답자가 있음에도 SNS와 인터넷을 합쳐 41명(15.6%)에 불과한 것은 관악제 홍보전략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9> 정보 경로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정보 경로	TV·라디오 등 언론매체	43	16.3
	현수막, 포스터, 팸프릿 등 홍보자료	76	28.9
	인터넷	14	5.3
	주변 지인	75	28.5
	SNS	27	10.3
	기타	19	7.2
	무응답	9	3.4
	합 계	263	100.0

(3) 관람 동행자

제주국제관악제 관람 동행자는 친구 98명(37.3%), 가족·친지 95명(36.1%), 직장 동료 23명(8.7%), 혼자 19명(7.2%), 친목, 종교, 동호인 단체 11명(4.2%), 학교단체·수학여행 8명(3.0%), 기타 5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나 가족·친지와 주로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위원회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가족 구성원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관악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IV-10> 관람 동행자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관람 동행자	혼자	19	7.2
	가족·친지	95	36.1
	친구	98	37.3
	직장동료	23	8.7
	단체(친목, 종교, 동호인)	11	4.2
	학교단체·수학여행	8	3.0
	기타	5	1.9
	무응답	4	1.5
	합 계	263	100.0

(4) 평균 관람시간

제주국제관악제 관람 시 평균 관람시간은 60분~90분 미만 121명(46.0%), 30분~60분 미만 75명(28.5%), 90분~120분 미만 33명(12.5%), 120분 이상 23명(8.7%), 30분 미만 11명(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악제 공연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1> 평균 관람시간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관람시간	30분 미만	11	4.2
	30분~60분 미만	75	28.5
	60분~90분 미만	121	46.0
	90분~120분 미만	33	12.5
	120분 이상	23	8.7
	합 계	263	100.0

(5) 관람 목적

제주국제관악제 관람의 주된 목적은 관악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서 155명(58.9%), 전공, 일과 관련이 있어서 50명(19.0%),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29명(11.0%), 주위에서 추천해줘서 15명(5.7%), 기타 7명(2.7%), 무응답 4명(1.5%), 교육적인 목적으로 3명(1.1%) 순으로 나타났다. 관악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많은 관람객들을 위해 관악을 전문으로 하는 축제의 특성을 살리고 관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2> 관람 목적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관람 목적	관악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서	155	58.9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29	11.0
	교육적인 목적으로	3	1.1
	전공/일과 관련이 있어서	50	19.0
	주위에서 추천해줘서	15	5.7
	기타	7	2.7
	무응답	4	1.5
	합 계	263	100.0

(6) 만족도, 즐거움, 재관람의도, 추천의도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한 응답자 대상으로 만족도, 즐거움, 재관람의도, 추천의도를 각각 단일 문항으로 5점 리커트척도로 분석하였다.

‘나는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는 만족도 질문에 그렇다 114명(43.3%), 매우 그렇다 84명(31.9%), 보통이다 54명(20.5%), 전혀 그렇지 않는다 5명(1.9%), 그렇지 않다 5명(1.9%), 무응답 1명(0.4%) 순으로 나왔고 평균은 4.02이다.

‘나는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하여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즐거움 질문에 그렇다 110명(41.8%), 매우 그렇다 95명(36.1%), 보통이다 48명(18.3%), 그렇지 않다 9명(3.4%), 전혀 그렇지 않는다 1명(0.4%) 순으로 나왔고 평균은 4.10이다.

‘나는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한 후 다시 관람하고 싶어졌다’라는 재관람의도 질문에 그렇다 97명(36.9%), 매우 그렇다 96명(36.5%), 보통이다 57명(21.7%), 그렇지 않다 9명(3.4%), 전혀 그렇지 않는다 3명(1.1%), 무응답 1명(0.4%) 순으로 나왔고 평균은 4.05이다.

‘나는 제주국제관악제를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라는 추천의도 질문에 매우 그렇다 101명(38.4%), 그렇다 95명(36.1%), 보통이다 49명(18.6%), 그렇지 않다 15명(5.7%), 전혀 그렇지 않는다 2명(0.8%), 무응답 1명(0.4%) 순으로 나왔고 평균은 4.06이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한 사람들은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하면서 대체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며, 다시 관람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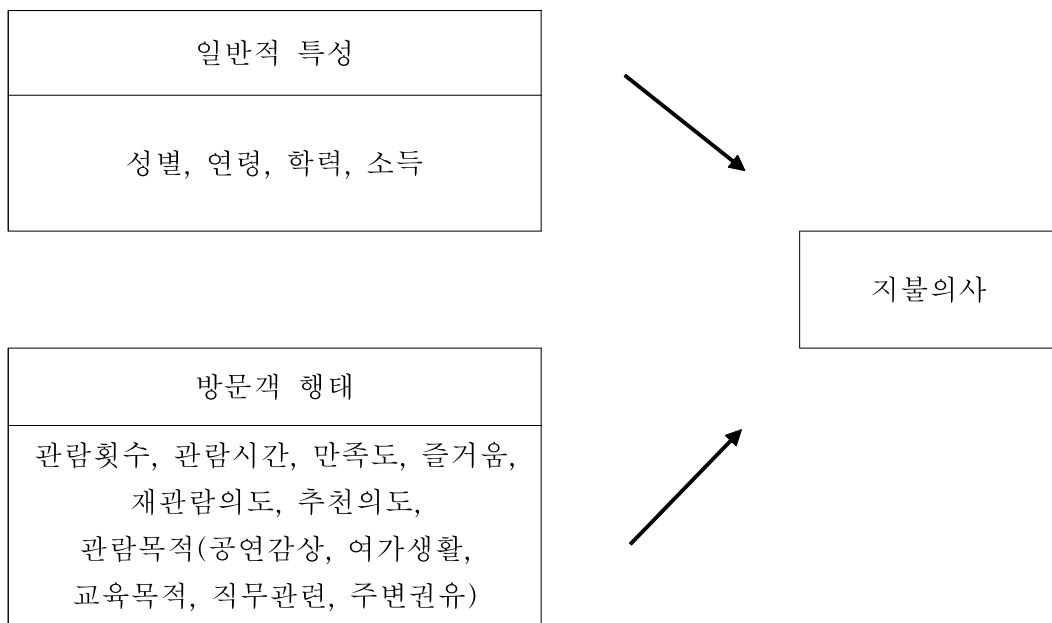
<표 IV-13> 만족도, 즐거움, 재관람의도, 추천의도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5	1.9	4.02	0.882
	그렇지 않다	5	1.9		
	보통이다	54	20.5		
	그렇다	114	43.3		
	매우 그렇다	84	31.9		
	무응답	1	0.4		
즐거움	전혀 그렇지 않다	1	0.4	4.10	0.841
	그렇지 않다	9	3.4		
	보통이다	48	18.3		
	그렇다	110	41.8		
	매우 그렇다	95	36.1		
재관람 의도	전혀 그렇지 않다	3	1.1	4.05	0.909
	그렇지 않다	9	3.4		
	보통이다	57	21.7		
	그렇다	97	36.9		
	매우 그렇다	96	36.5		
	무응답	1	0.4		
추천의도	전혀 그렇지 않다	2	0.8	4.06	0.933
	그렇지 않다	15	5.7		
	보통이다	49	18.6		
	그렇다	95	36.1		
	매우 그렇다	101	38.4		
	무응답	1	0.4		

2.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 경제적 가치추정

1) 지불의사금액 추정

제주국제관악제의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제주국제관악제의 지불의사금액 연구모형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GEN), 연령(AGE), 학력(EDU), 소득(INC)을, 방문객 행태로는 관람횟수(FRE), 관람시간(TIM), 만족도(SAT), 즐거움(ENJ), 재관람의도(REV), 추천의도(WOM), 공연감상(LIS), 여가생활(LEI), 교육목적(STU), 직무관련(REL), 주변권유(REC)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람객의 행태에 따라 지불의사금액 추정이 달라지며 제시 금액의 수락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1) 제시금액별 지불의사 분석

제시금액별 지불의사 응답률은 <표 IV-14>와 같다.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제시금액별 두 가지 질문의 수락 여부를 살펴보면, 제시금액 10,000원에 대해서는 ‘YES-YES’가 33.3%, ‘YES-NO’가 28.6%, ‘NO-YES’가 20.6%, ‘NO-NO’가 17.5%로 나타났다. 제시금액 20,000원의 수락 여부는 ‘YES-YES’가 21.6%, ‘YES-NO’가 25.7%, ‘NO-YES’가 20.3%, ‘NO-NO’가 32.4%로 나타났다. 제시금액 30,000원에 대해서는 ‘YES-YES’가 9.4%, ‘YES-NO’가 39.1%, ‘NO-YES’가 29.7%, ‘NO-NO’가 21.9%로 나타났다. 제시금액 40,000원의 수락 여부는 ‘YES-YES’가 4.8%, ‘YES-NO’가 14.5%, ‘NO-YES’가 46.8%, ‘NO-NO’가 33.9%로 나타났다.

<표 IV-14> 제시금액별 지불의사 응답률

제시금액(원)	수락여부	빈도(명)	비율(%)
10,000	YES-YES	21	33.3
	YES-NO	18	28.6
	NO-YES	13	20.6
	NO-NO	11	17.5
소 계		63	100.0
20,000	YES-YES	16	21.6
	YES-NO	19	25.7
	NO-YES	15	20.3
	NO-NO	24	32.4
소 계		74	100.0
30,000	YES-YES	6	9.4
	YES-NO	25	39.1
	NO-YES	19	29.7
	NO-NO	14	21.9
소 계		64	100.0
40,000	YES-YES	3	4.8
	YES-NO	9	14.5
	NO-YES	29	46.8
	NO-NO	21	33.9
소 계		62	100.0

제주국제관악제의 입장료에 대한 최초 제시금액, 최초 제시 2배 금액, 최초 제시 0.5배 금액별 지불의사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제시금액에 따른 지불의사

최초제시 금액 (원)	지불의사		최초제시 2배금액 (원)	지불의사		최초제시 0.5배 금액(원)	지불의사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10,000	39 (61.9)	24 (38.1)	20,000	21 (53.8)	18 (46.2)	5,000	13 (54.2)	11 (45.8)
20,000	35 (47.3)	39 (52.7)	40,000	16 (45.7)	19 (54.3)	10,000	15 (38.5)	24 (61.5)
30,000	31 (48.4)	33 (51.6)	60,000	6 (19.4)	25 (80.6)	15,000	19 (57.6)	14 (42.4)
40,000	12 (19.4)	50 (80.6)	80,000	3 (25.0)	9 (75.0)	20,000	29 (58.0)	21 (42.0)
합계	117 (44.5)	146 (55.5)	소계	46 (39.3)	71 (60.7)	소계	76 (52.1)	70 (47.9)

최초 제시금액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네 가지의 금액을 제시하였다. 최초 제시금액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117명(44.5%),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는 146명(55.5%)으로 나타났다. 최초 제시 2배 금액에 대해서는 46명(39.3%)이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71명(60.7%)은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제시 0.5배 금액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76명(52.1%),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는 70명(47.9%)으로 나타났다. 최초 제시금액이 클수록 지불의사가 낮아지고, 최초 제시 0.5배 금액의 지불의사가 2배 금액의 지불의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6>은 제시 금액에 대한 응답률이며 20,000원, 10,000원, 30,000원과 40,000원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지불의사금액 10,000원은 최초 제시금액 10,000원에서 'YES-NO', 20,000원에서 'NO-YES'로 응답한 합계이고, 지불의사금액 20,000원은 최초 제시금액 10,000원에서 'YES-YES', 20,000원에서 'YES-NO', 40,000원에서 'NO-YES'로 응답한 합계가 되었고, 지불의사금액 40,000원은 최초 제시금액 20,000원에서 'YES-YES', 40,000원에서 'YES-NO'로 응답한 합계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불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지불의사는 낮아지는 일반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제주국제관악제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고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적절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6> 지불의사금액 분포와 지불의사 응답률

지불의사금액(원)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5,000	13	6.7	6.7
10,000*	33	17.1	23.8
15,000	19	9.8	33.7
20,000*	69	35.8	69.4
30,000*	25	13.0	82.4
40,000*	25	13.0	95.3
60,000	6	3.1	98.4
80,000	3	1.6	100.0
합 계	193	100.0	

주 : * 는 최초 제시금액을 나타냄.

(2) 지불의사가 있는 이유와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

‘지불의사가 있다’는 것은 <표 IV-14>에서 YES-YES, YES-NO, NO-YES라고 답한 경우를 말한다. 응답자들의 지불의사가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표 IV-17>과 같다.

문화예술축제로서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다 103명(53.4%),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로서 가치가 있다 68명(35.2%), 무응답 9명(4.7%),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5명(2.6%), 입장료를 지불하면 관람객이 줄어들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4명(2.1%), 기타 4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도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서는 관리와 유지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제주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표 IV-17> ‘지불의사가 있다’ 라고 응답한 이유

지불의사가 있는 이유	빈도(명)	비율(%)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서 가치가 있다	68	35.2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5	2.6
문화예술축제로서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다	103	53.4
입장료를 지불하면 관람객이 줄어들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4	2.1
기타	4	2.1
무응답	9	4.7
합 계	193	100.0

‘지불의사가 없다’는 것은 <표 IV-14>에서 NO-NO라고 답한 경우를 말한다. 응답자들의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표 IV-18>과 같다.

만약에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나는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하지 않을 것 같다 26명(37.1%), 제주국제관악제는 관람객이 받아야 할 권리이지 관람객이 이를 위해 돈을 지불할 대상은 아니다 16명(22.9%), 제시된 금액이 너무 높다 15명(21.4%), 제주국제관악제의 입장료에 대해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모르겠다 6명(8.6%), 기타 4명(5.7%), 지불한 입장료가 국제관악제를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다 2명(2.9%), 무응답 1명(1.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만약에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나는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제주도 문화예술계가 고민하는 무료 티켓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눈여겨 볼 부분은 ‘제시된 금액이 너무 높다’의 응답자 15명 중 최초 제시금액 40,000원 응답자가 9명이다. 이는 최초 제시금액이 클수록 ‘제시된 금액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8> ‘지불의사가 없다’ 라고 응답한 이유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	빈도(명)	비율(%)
제주국제관악제의 입장료에 대해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모르겠다	6	8.6
지불한 입장료가 국제관악제를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다	2	2.9
제주국제관악제는 관람객이 받아야 할 권리이지 관람객이 이를 위해 돈을 지불할 대상은 아니다	16	22.9
만약에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나는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하지 않을 것 같다	26	37.1
제시된 금액이 너무 높다	15	21.4
기타	4	5.7
무응답	1	1.4
합 계	70	100.0

(3) 지불의사금액(WTP) 추정

지불의사금액(WTP)의 추정은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추정’과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추정’으로 나누어 2회 실시하였다.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STATA 14에서 명령어 doubleb는 $\hat{\beta}$ 를 직접 추정하므로 지불의사금액(WTP)의 계산식은 $\tilde{z}'\hat{\beta}$ 이 된다(장석원, 김상문, 2015). 그러므로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추정에서 지불의사금액(WTP)은 상수계수인 23,630.57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9>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추정 결과

	Coeff.	Std. Err.	$p > z $	[95% Confidence Interval]	
Beta _cons	23630.57	1522.688	0.000	20646.16	26614.99

Number of obs = 263
Log likelihood = -362.91991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일반적 특성인 성별(GEN), 연령(AGE), 학력(EDU), 소득(INC) 그리고 방문객 행태인 관람횟수(FRE), 관람시간(TIM), 만족도(SAT), 즐거움(ENJ), 재관람의도(REV), 추천의도(WOM), 공연감상(LIS), 여가생활(LEI), 교육목적(STU), 직무관련(REL), 주변권유(REC)를 독립변수(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IV-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람객 행태인 추천의도, 교육목적이 지불의사금액(WT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추천의도의 계수가 양(+)의 부호를 갖는 것은 응답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도가 높을수록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주국제관악제의 홍보수단으로 추천의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다른 설명변수인 교육목적도 양(+)의 부호를 갖는 것은 응답자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참

여 의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금액(WTP)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국제관악제 기간동안 음악세미나, 음악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공변량을 포함한 지불의사금액(WTP)은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거의 유사한 23,631.585원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추정 WTP이다.

<표 IV-20>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추정 결과

Variables	Coefficient	Std. Err.	$p > z $	Waid Chi ² (p-value)	Log likelihood
GEN	4012.376	3054.036	0.189	36.66 (0.0014)	-342.97999
AGE	118.8887	142.4758	0.404		
EDU	2614.813	2124.333	0.218		
INC	379.5768	1330.954	0.775		
FRE	-90.22835	220.2953	0.682		
TIM	3100.984	1622.858	0.056		
SAT	-426.0543	2992.682	0.887		
ENJ	-2718.411	4350.768	0.532		
REV	1401.228	4186.462	0.738		
WOM	7603.857	3639.958	0.037*		
LIS	5482.327	7255.438	0.45		
LEI	2244.946	8223.095	0.785		
STU	35954.68	15524.95	0.021*		
REL	8520.808	7952.406	0.284		
REC	-5099.056	9593.958	0.595		
Constant	-32021.67	14925.98	0.032		

WTP: 23631.585

* $p < 0.05$

앞서 살펴본 로지스틱함수에 적용하고 확률모형의 추정된 결과를 분석하면, <표 IV-21>에서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은 중앙값 23,497.26원, 평균값 23,688.1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V-21>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의 중앙값과 평균값

Median of WTP per 1 visitor	Average of WTP per 1 visitor
₩23,497.26	₩23,688.1

2) 경제적 가치추정

본 연구는 제주국제관악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DB-DC CVM)을 이용하였다. DB-DC CVM은 로짓함수를 로짓모형으로 추정하여 평균 WTP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제주국제관악제의 입장료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은 23,688.1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제주국제관악제를 방문하는 관람객 수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지만 조직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제주국제관악제 평가연구 결과보고서’에서 추산한 관람객 수를 인용하여 코로나19 발생 직전 3개년으로 2017년 45,000명, 2018년 50,000명, 2019년 43,565명의 평균인 46,188명으로 관람객 수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제주국제관악제를 방문했던 3개년 평균 총 관람객 수를 산정하고 그 값에 1인당 지불의사금액을 곱하면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경제적 가치가 추정된다.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경제적 가치 = 1인당 지불의사금액 × 총 관람객 수

위의 식에 1인당 지불의사금액 23,688.1원과 총 관람객 수 46,188명을 대입하여 곱한 결과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경제적 가치가 1,094,105,962.8원으로 추정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축제의 1인당 지불의사금액과 비교·분석을 통해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문화예술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5,574원, 하이서울페스티벌 3,669원, 전주세계소리축제 18,744원보다 높은 금액이고, 부산국제영화제 55,213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축제의 장르도 다르지만 지불수단 측면에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입장료,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축제지원금,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기부금, 부산국제영화제는 공공기금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이들의 연구대상은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 중에서 비사용가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가치 중 사용가치를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기 때문에 지역축제로 범위를 확장시켜 지불수단이 입장료인 사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축제 입장료의 지불의사금액(WTP)은 경산자인단오제 19,218원, 김제지평선축제 10,504원, 화천산천어축제 7,820원(송운강 등, 2015), 내국인 18,458원, 외국인 10,961원(김정준, 2016), 성산일출제 2,070원, 부천시 봄꽃축제 2,444원, 서울세계불꽃축제(관람료) 56,651원, 한강몽땅여름축제 23,927원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서울세계불꽃축제와 한강몽땅여름축제의 지불의사금액(WTP) 다음으로 높은 금액으로 분석되었다.

지불수단이 다른 축제의 지불의사금액(WTP)을 비교·분석하는 것도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경제적 가치추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축제들의 지불의사금액(WTP)을 살펴보면 정선아리랑제는 축제기금으로 12,261원, 강릉단오제는 발전기금으로 17,876원, 보령머드축제는 환경보존기금으로 20,603원, 부산 불꽃축제는 세금으로 Log-Logistic Model에서 5,661원, Log-Normal Model에서 5,313원, 함양산삼축제는 유지기금으로 10,389원, 부산시 소규모지역축제(2곳)는 축제기금으로 2,350원과 2,125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불수단이 다르고 비사용가치를 측정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은 다른 축제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데 폭넓게 사용해 온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DB-DC CVM)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축제 중 음악제인 제주국제관악제의 사용가치를 측정하는 계량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관람객 행태를 기반으로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지불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로짓모형으로 추정된 결과 추천의도가 높을수록 입장료의 지불의사도 증가하고, 추천의도가 낮을수록 입장료의 지불의사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적인 목적의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입장료의 지불의사도 증가하고, 교육적인 목적의 참여의도가 낮을수록 입장료의 지불의사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명변수인 추천의도와 교육목적의 계수가 양(+)의 부호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제주국제관악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된 결과는 입장료의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의 평균값은 23,688.1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1인당 지불의사금액에 총 관람객 수를 곱하여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제주국제관악제의 입장료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지불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효한 전체 표본의 26.6%로 나타났다. 이 응답자들 중 ‘만약에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나는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국제관악제의 입장료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를 알아내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추천의도, 교육목적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고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결과는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높은 관람객일수록 관악제 지불의사가 높고,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관람한 관람객일수록 지불의사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둘째, 기존에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음악장르의 문화예술축제에서 제주국제관악제의 사용가치를 중심으로 추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 중 비사용가치를 추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사용가치를 추정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본 연구를 기점으로 더 많은 사용가치 추정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제주국제관악제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 관련 연구들은 제주국제관악제의 사회경제적 영향,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마케팅 전략 등을 다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축제 입장료를 도입한 강진청자문화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전주유등축제 등의 입장료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정찬영, 이훈, 201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의 경제적 가치평가가 입장료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추천의도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주위에 추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지불의사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홍보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관악제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구전(word of mouth)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교육목적이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교육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제주국제관악제 축제 기간에 음악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만하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아스펜 음악축제(Aspen Music Festival)는 9주간 열리는데 음악학교(Aspen Music School)도 함께 운영한다. 이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축제 기간에 학교를 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국제관악제의 입장료에 대한 관람객의 지불의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진행했지만 문화예술축제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설계에서 가상상황을 설정하고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DB-DC CVM)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DB-DC CVM)은 지불의사의 과대평가로 인해 실제가치(true value)가 왜곡될 수 있는 가설적 편의(hypothetical bi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충기, 2013).

둘째, 제주국제관악제를 경험한 관람객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다 보니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표출이 용이해 신속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화가 어려운 편의표본추출을 사용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제주국제관악제의 지불의사금액(WTP)은 통계적으로 산출된 추정값이다.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DB-DC CVM)은 여러 가지 편의(bias)가 있어서 연구자의 설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NOAA 패널의 지침에 따라 사전조사 및 설문조사를 얼마나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DB-DC CVM)의 가설적 편향(hypothetical 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가급적 가상시장이 아니라 현실시장을 연구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설문 표본방법은 편견개입을 통제하고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할당표본추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제주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성별, 연령별로 적절하게 할당하므로 설문 표본에서 오는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시장재인 문화예술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제주국제관악제의 경제적 가치 중 비시장가치에 대한 가치추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제주국제관악제에 제주도 예산이 반영되므로 관악제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비시장가치를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면, 공공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강진영 (2022). **환경교육의 가치에 대한 두 가지 고찰: 교육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하나 (2019).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한 친환경 패션의 소비자 지불의사(WTP) 추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상현 (2021). '축제' 개념의 근대 유입과 현대 한국적 개념의 단초. **인문콘텐츠**, 63, 257-279.
- 고혜영, 양정철, 임정현, 황경수 (2019). 제주국제관악제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9), 323-332.
- 권오상 (1999). **환경경제학**. 서울: 박영사.
- 권진 (2022).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1996-2022 보고서**.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 김광훈 (2021). 도시재생의 장소성과 거리문화예술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예술산업연구**, 21(2), 25-32.
- 김기령 (2021).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와 지불의사액 추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운 (2018).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시티서울 전시 분석: 2010년 이후 4회의 전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사현 (2020). **관광경제학**. 과주: 백산출판사.
- 김승호 (2018). 한스하케의 게르마니아1993_의식의 매니저로서 베니스비엔날레_프로젝트. **예술과 미디어**, 17(1), 9-32.
- 김영순, 최민성 (2006). **축제와 문화콘텐츠**. 서울: 다할미디어.
- 김정준 (2016). 화천산천어축제의 내·외국인 참가자 비교를 통한 경제적 가치 측정: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72, 83-98.
- 김정희 (2005). 베니스 비엔날레(1895-2003)의 역사와 당대 미술과의 관계. **현대미술사연구**, 17, 199-250.
- 김지혜 (2007). **한국의 관악 발전사와 제주의 관악 발전사에 대한 비교 연구**.

-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후 (2019). 개최목적으로 본 한국 국제영화제 정체성 분석-부산, 부천, 전주 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7, 7-39.
- 金彩玉, 馬 波, 金昭恩 (2010). CVM을 통한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가치평가. **아·태비즈니스연구**, 1(1), 23-40.
- 김춘식, 남치호 (2002). **세계 축제경영**. 서울: 김영사.
- 김태관 (2011).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한도 (2006). **제18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결과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분석**. 창원: 경남발전연구원.
- 김현정 (2022). **한국공연무역 발전을 위한 영국 사례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홍엽 (2011). **문화예술축제의 참가동기·사후만족·행동의도 연구: 제60회 개천예술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 안태기 (2010). **문화예술축제론**. 파주: 도서출판 한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4). PART 2: 도시 락(樂); 태국 송크란 축제와 오스트랄리아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 **도시문제**, 49(545), 50-55.
- 류영호 (2018). **무형문화유산 가치 평가를 위한 CVM 적용 모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에 의한 지역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은영 (2012). 문화축제 소론. **프랑스문화예술연구**, 40, 295-325.
- 류정아 (2007).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지혜 (2009). **제주국제관악제의 발전방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2001). **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개혁방안연구 보고서**. 행정자치부 2001년 민간단체 지원사업.
- 박서재 (2022). 공연적 전환 관점에서 에딘버러 프린지 축제방문객 시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3), 413-429.
- 박재석, 문성철, 유승훈 (2011).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우체국 네트워크의 사회적 가치 추정: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태환, 장민호 (2022). 음악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 축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 활성화 연구: 한국, 러시아의 축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22(1), 21-34.
- 박현, 유경준, 곽승준 (2004).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배수희 (2022). 제1회-제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나타난 과학기술 수용의 양가성에 대한 연구. **미학·예술학연구**, 67, 82-107.
- 부창산 (2019). CVM을 이용한 지역축제 입장료 경제적 가치추정 연구: 성산일출제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88, 65-81.
- 서연호 (2001). 지역축제와 전국문화예술축제의 발전 방향. **아시아강원민속**, 15, 55-64.
- 서희석, 윤정현 (2006).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함평나비축제, 익산 서동축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4), 207-229.
- 서희주 (2022). 비엔날레의 문화정치학과 예술 담론의 중요성. **철학논총**, 108(2), 53-68.
- 송운강, 박용민, 양희원 (2015).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추정. **관광연구저널**, 29(3), 41-50.
- 송은아, 임준묵 (2018). 문화산업으로서 축제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 거창국제연극제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8), 55-63.
- 송재호, 고계성 (2000). 축제방문객의 '기대-성과 불일치': 제주도 국제시민마라톤 대회와 국제관악제의 비교분석. **관광경영연구**, 8, 74-89.
- 신백수 (2006). **문화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200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기섭 (2021).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어메니티의 관점에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상화 (2009). 전통문화축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과 결정요인. **관광레저연구**, 21(4), 41-56.
- 안상훈, 심상달, 장준경, 김세용, 서경란, 김석영, 유재광, 이현정, 최지은, 김대근, 조숙진, 여민영, 이유나, 홍기석, 엄영숙, 임재만 (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안효래, 신흥철 (2020).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이용가치 평가. **호텔리조트연구**, 19(3), 237-252.
- 양정철, 이관홍, 황경수 (2018). 제주국제관악제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제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7), 362-374.
- 오훈성 (2014). 축제의 산업화, 지역의 경제구조를 바꾼다. **클릭경제교육**, 131, 18-19.
- 왕치현, 이문기 (2006). 세계 공연예술제의 현황과 분석.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14, 203-232.
- 유승훈 (2020). **에너지 공공투자사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조건부 가치평가법**. 의왕: 도서출판 아진.
- 유창석, 원도연 (2016). 전주국제영화제의 주제의식과 콘텐츠 변화 연구. **인문콘텐츠**, 41, 217-241.
- 윤동진 (2015). 음악축제의 국제화 과정과 요인: 제주국제관악제를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19(4), 101-133.
- 윤동진, 김정희 (2016). 제주국제관악제의 성공요인과 과제. **탐라문화**, 51, 275-306.
- 이강봉 (2012). 문화예술축제 환경단서가 지역축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개천예술제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6(2), 1-11.
- 이광희, 변재진 (2020). **도시를 살리는 문화관광**. 서울: 박영사.
- 이상철 (1996). **문화관광 이벤트로서의 제주국제관악제 활성화 방안**.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근, 김규섭 (2011). DB-DC CVM을 적용한 함양산삼축제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5(2), 209-227.
- 이우경, 이성근 (2012). 경산 자인단오제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DB-DC CVM을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연구**, 3(2), 1-22.
- 이원미 (2019). **축제의 속성분석을 통한 한국공연예술축제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정, 황경수, 고태호 (2009).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0(11), 3506-3513.

- 이종연 (2015). **삶의 만족도 접근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가치평가**.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이종연, 이현정, 박미수, 김진경, 성기택, 최홍빈, 유승훈, 최효연, 변태근, 정세리 (2015).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세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이종원, 박정배 (2014). 거창국제연극제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4), 475-484.
- 이주경, 김세준 (2016).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경제적 가치추정 연구. **예술경영연구**, 38, 133-153.
- 이진권 (2009). 생태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에서의 CVM 기법의 편의와 극복방안. **서비스산업연구**, 6(2), 33-52.
- 이찬영 (2013). **공연예술축제 자원봉사자 운영체계 및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제주국제관악제를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충기, 김태균 (2010). CVM을 이용한 보령머드축제 생태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가설적 편의의 최소화 방법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5(4), 129-144.
- 이충기(2013). 독도의 보존가치 평가: 2단계 가상가치평가법(CVM) 활용. **관광학연구**, 37(4), 117-139.
- 인재진 (2014). **칭춘은 찌글찌글한 축제다**. 서울: 마음의 숲.
- 임지영, 구문모 (2015). 문화예술축제에서의 문화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고찰: 프랑스 아비뇽 축제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33(4), 251-293.
- 장기범 (2016). Charles Everett Gilbert의 제주 관악대 업적에 대한 내러티브와 평가. **음악교육공학**, 29, 1-19.
- 장준경, 이현정, 조숙진, 박미수, 엄영숙, 김용주, 이주석, 권오상, 김진옥, 신영철, 유승훈, 서영 (2012).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 세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환경경제학회.
- 장석원, 김상문 (2015). CVM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48(9), 711-717.
- 정다운, 김명선, 우민아, 나예정 (2023). 가상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한 입장료

- 지불가치 평가: 한강몽땅여름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7(1), 47-61.
- 정다혜 (2018).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한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입장료 지불의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용관, 이주영, 박상수, 이충기 (2017). **조건부가치추정모형(CVM) 개선을 위한 방법론 연구**. 세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정찬영, 이훈 (2014). 축제의 경제적 지속성을 위한 축제 입장료 지불 가치 추정. **관광연구논총**, 26(2), 153-174.
-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2020). **섬, 그 바람의 울림**. 제주: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문화예술60년사**. 제주: 대영인쇄사.
- 조부환 (2018). **국제관악제의 마케팅 전략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수현, 이동철, 허윤정 (2014). 개인여행비용법(Individual Travel Cost Model)에 의한 금정산 방문객의 경제적 가치추정. **경영과 정보연구**, 33(2), 301-315.
- 주수현, 정성호 (2010). 이중 양분형 CVM을 통한 부산 불꽃축제에 대한 편익 가치 추정.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4(2), 185-204.
- 차재혁 (2017). **프로스포츠 구단의 ICT 융합 기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편익 분석: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의 적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경진, 조일형 (2019).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적용한 지역축제의 입장료 지불가치 추정: 부천시 봄꽃축제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4(1), 1-23.
- 하동훈 (2022). **축제·행사 유형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상현 (2008). 지역문화축제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국제영화제(PIFF)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3(1), 231-251.
- 한상현 (2014). 소규모 지역축제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관광산업연구**, 8(2), 38-55.

- 함윤주, 이주석 (2021). 여행비용 접근법을 활용한 서울숲의 방문가치 산정.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6), 2907-2918.
- 허중욱 (2007). 경제적 가치 추정과 결정요인: 정선아리랑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2(1), 343-363.
- 홍성필, 박상준, 김기민, 엄영숙, 김진옥, 남궁문, 이길주 (2011). **교통시설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철도사업의 선택가치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황세연, 고정훈 (2021). 캐릭터마케팅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에 대한 연구: 지역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65, 69-81.
- 황찬휘 (2018). **제주국제관악제 현황 분석을 통한 교육적 가치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owicz, W., Louviere, J., & Williams, M. (1994). Combining Revealed and Stated Preference Methods for Valuing Environmental Ameni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s Management*, 26(3), 271-292.
- Adamowicz, W., Boxall, P., Williams, M., & Louviere, J. (1998). Stated Preference Approaches for Measuring Passive Use Values: Choice Experiments and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0, 64-75.
- Adelman, I., & Griliches, Z. (1961). On an index of quality change.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6(295), 535-548.
- Arrow, K., Solow, R., Portney, P. R., Leamer, E. E., Radner, R., & Schuman, H. (1993).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Federal Register, 58, 4601-4614.
- Bishop, R. C., & Heberlein, T. A. (1979). Measuring values of extramarket goods: Are indirect measures biased?.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1(5), 926-930.
- Boyle, K. J., & Bishop, R. C. (1984). *A Comparison of Contingent Valuation Technique*. Staff Paper Series No. 222,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Wisconsin University, Madison.

- Cameron, T., & James, D. (1987). Efficient Estimation Methods for 'Closed-ended' Contingent Valuation Surveys.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69, 269-276.
- Ciracy-Wantrup, S. V. (1947). Capital Returns from Soil-Conservation Practices. *Journal of Farm Economics*, 29, 1181-1196.
- Crompton, J. L., & McKay, S. L. (1997). Motives of Visitors Attending Festival Even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2), 428-429.
- Davis, R. K. (1963). Recreation Planning as an Economic Problem. *Natural Resource Journal*, 3(2), 239-249.
- Edinburgh Festival Fringe Society. (2019). *Annual Review 2019*. Edinburgh: Edinburgh Festival Fringe Society.
- Hanemann, W. M. (1978). *A Method of logical and Empirical Study of the Recreation Benefits from Water Quality Improvement*.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Hanemann, W. M. (1984).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6, 332-341.
- Hanemann, W. M., & Kanninen, B. J. (1999). "The statistical analysis of discrete-response CV data", in I. J. Bateman and K. E. Willis, ed., *Valuing Environmental Preferences: Theory and Practice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the US, EU, and Developing Count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nemann, M., Loomis, J., & Kanninen, B. (1991). Statistical efficiency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3(4), 1255-1263.
- Krutilla, J. V. (1967). Conservation Reconsidered. *American Economic Review*, 57, 787-796.
- Mackenzie, J. (1993). A Comparison of Contingent Preference Model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5, 593-603.

- Mitchell, R. C., & Carson, R. T. (1981). An Experiment in Determining Willingness to Pay for National Water Quality Improve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E-0111.
- Pearman A. (1994). *The Use of Stated Preference Methods in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Change*, in R. Pethig, ed., *Valuing the Environment: Methodological and Measurement Issues*, Springer Netherlands.
- Randall, A., Berry, C. & Eastman, C. (1974). Bidding Ganes for Valuation of Aesthetic Environmental Improvem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1, 132-149.
- Rosen, S. (1974). Hedonic prices and implicit markets: product differentiation in pure competi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1), 34-55.
- Tomer, K. B. (2017). The Salzburg Festival is a Boon to the Local Economy. *The Economy*, Sep. 26th 2017.
- 거창국제연극제 홈페이지. <http://www.kift.or.kr> [2023. 5. 9]
- 베니스 비엔날레 홈페이지. <https://www.labiennale.org/en> [2023. 5. 12]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홈페이지. <https://mediacityseoul.kr> [2023. 5. 9]
- 에딘버러 페스티벌 홈페이지. <https://www.edinburghfestivalcity.com> [2023. 5. 12]
-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홈페이지. <https://www.edfringe.com> [2023. 5. 12]
-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홈페이지. <https://www.salzburgerfestspiele.at/en/> [2023. 5. 12]
-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https://www.jeonjufest.kr/> [2023. 5. 9]
-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 www.jiwef.org [2023. 3. 16]
-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3. 5. 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771> [2023. 5. 2]

Abstract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Admission Fees to a Local Culture and Arts Festival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Focusing on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Sungjin Yang

Dept.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 culture and arts festival is a representative culture and arts activity to convey the values of culture and arts to more people and help them enjoy them more. A culture and arts festival increases a local image, vitalizes local economy, and further has positive impacts on the image of a nation. This study focused on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as an effort to continuously maintain and develop culture and arts festival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admission fees to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which is a culture and arts festival to represent the Jeju region, and analyze factors influencing willingness to pay(WTP). As for methodology, the study employed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DB-DC) CVM to set a hypothetical situation for visitors to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A survey was conducted online and offline on March 18~April 14, 2023. After examining 263 valid questionnaires for respondents' WTP and degree of value, the study analyzed the results with SPSS 24 and STATA 14.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mean WTP admission per person for the festival was 23,688.1 w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led to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ut the two explanatory variables, recommendation intention and educational purpos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WTP. The study has the following academic implications: first, the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quantified and estimated the economic values of admission fees to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which is a culture and arts festival in the field of music that was not covered much in previous studies; secondly, the study is also significant to identify major variables influencing WTP for the festival; and thirdly, there were diverse studies on the festival, but the study was the first one to assess and investigate its economic values.

The study has the following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real cases of introducing admission fees to festivals show that admission profit contributed to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a local government. The findings of the study can serve as basic data for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to provide the validity and legitimacy of admission fees and make policies to promote the festival's economic sustainability based on the economic valuation of admissions; secondly, give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f recommendation intention on WTP, the festival may need to consider promotional strategies based on word of mouth to increase promotion effects and attract more visitors; and thirdly, since educational purpos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WTP, it will be needed to open a music school for educational purposes and run various programs during the festival. For instance, the Aspen Music Festival runs Aspen Music School during the nine-week period in Colorado, USA, offering many implications for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Keywords: culture and arts festival,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economic valu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illingness to pay(WTP)

[부록] 설 문 지

제주국제관악제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문화예술축제 활성화에 기여하신다는 생각으로 제시된 문항을 읽으신 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조사원에게 말씀해주시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조사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순수하게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조 사 자: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양성진
지도교수: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 수 박설우

II. 관람객 행태

7. 제주국제관악제를 이전에 관람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7-1번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8번 문항으로 이동)

7-1.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한 경험이 있다면 총 몇 번이나 관람하셨습니다?

()회

→ 8번 문항으로 가세요.

8.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정보(개최여부, 공연일정 등)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 ① TV·라디오 등 언론매체 ② 현수막, 포스터, 팸플릿 등 홍보자료
③ 인터넷 ④ 주변 지인 ⑤ 여행사·항공사
⑥ SNS ⑦ 기타(_____)

9. 제주국제관악제에 주로 누구와 함께 관람하으셨습니까?

- ① 혼자 ② 가족·친지 ③ 친구
④ 직장동료 ⑤ 단체(친목, 종교, 동호인) ⑥ 학교단체·수학여행
⑦ 기타(_____)

10. 제주국제관악제 관람시 평균 관람시간은 얼마입니까?

- ① 30분 미만 ② 30분~60분 미만 ③ 60분~90분 미만
④ 90분~120분 미만 ⑤ 120분 이상

11. 제주국제관악제 관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관악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서 ②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③ 교육적인 목적으로 ④ 전공/일과 관련이 있어서
⑤ 주위에서 추천해줘서 ⑥ 기타(_____)

Ⅲ.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의견

12. 다음 항목에서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 나는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하여 즐거움을 느낀다.					
3) 나는 제주국제관악제를 관람한 후 다시 관람하고 싶어졌다.					
4) 나는 제주국제관악제를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Ⅳ.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 경제적 가치 추정 질문

※ 다음은 제주국제관악제의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하기 위하여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상 상 황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 '제1회 제주국제관악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8년째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축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국제관악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입장료」를 받고자 합니다.

13. 제주국제관악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귀하께서는 <초기 제시금액>만큼의 입장료를 지불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아래 13-1문항에 응답바랍니다 ↓)		② 없다 (아래 13-2문항에 응답바랍니다 ↓)	
13-1. 그렇다면, 제주국제관악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2배 금액>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13-2. 그렇다면, 제주국제관악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1/2배 금액>을 지불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아래 14번 문항으로 가세요.		아래 15번 문항으로 가세요.	

14. (13-1의 ①, ②번과 13-2의 ①번 문항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하십시오)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에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서 가치가 있다.
- ②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문화예술축제로서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다.
- ④ 입장료를 지불하면 관람객이 줄어들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 ⑤ 기타(_____)

15. (13-2의 ②번 문항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하십시오)

제주국제관악제 입장료에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제주국제관악제의 입장료에 대해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모르겠다.
- ② 지불한 입장료가 국제관악제를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다.
- ③ 제주국제관악제는 관람객이 받아야 할 권리이지 관람객이 이를 위해 돈을 지불할 대상은 아니다.
- ④ 만약에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나는 국제관악제를 관람하지 않을 것 같다.
- ⑤ 제시된 금액이 너무 높다.
- ⑥ 기타(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